

제1회 경기지역학 포럼

“인물과 지역의 정신 문화”

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장소 : 안산학연구원 강당



경기지역학연구협의회(준)



- 목 차 -

1. 기조강연 「지역학의 가능성과 미래」

이해준(공주대 교수) 1

2. 「시흥의 교육자 최극렬 선생의 정신유산 고찰」

발표 : 정원철(시흥문화원장) 9

토론 : 이형수(전 최극렬선생선양사업회장) 19

3. 「오리 이원익과 청림도시 광명」

발표 : 이호성(광명문화원 사무국장) 23

토론 : 민성혜(광명역사문화연구소장)

4. 「미수 허목의 철학과 연천에 미친 영향」

발표 : 이준용(연천문화원 사무국장) 29

토론 : 허현강(임진강문화연구원장) 39

5. 「안산의 문예부흥과 강세황」

발표 : 정진각(안산학연구원 연구위원) 41

토론 : 이우석(건국대 강사) 49

[자료] 「서석 김만기 선생의 생애와 유적」

임명재(군포설화문화해설사 회장) 51

지역학, 그 가능성과 기대

이해준¹⁾(공주대학교)

1. 무엇을 위한 ‘지역학’인가?

우리 교육현장의 복잡 미묘한 현실을 묘사하여 비평하는 말 중에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우리의 지역문화 현실도 그런 점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낙후된 연구기반, 다양화하는 수요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필요와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하는 등 여러 난제가 서로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 현장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 없다면 현재의 힘든 노력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지역문화연구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저인망식 시스템과 자기 성취욕을 바탕으로 성숙해 온 특이한 연구 분야이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성, 고립성을 지니게 마련이고, 또 지역문화 연구층이나 관심이 미약한 곳에서는 경쟁력과 객관성도 약하여 주관적이라는 비판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과 대응력의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그것이 바로 ‘지역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학의 개념은 대체로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 정체성을 지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 정의된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학의 속성을 정리한다면, 우선 특정 지역이 연구대상이라는 점과 오랜 역사, 문화적 전통에 토대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통하여 지역민의 주체적 자기문화 인식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 도출하여야 한다.

‘지역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는 것은 어쩌면 조급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필자가 말하는 지역학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문화”를 조사·연구·활용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다소 소박하고 애매한 측면도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시가 시작한 지역학처럼 ‘개념 규정 없이’, ‘가나자와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감성적 지역학도 필요한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완성도 높은 지역학을 지향하여야 하겠지만, 우선은 주인도 없고 철학도 없이 분산·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문화 활동을 종합하는 장치로서 지역학 연구와 자원활용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 즉, 우리 지역문화의 현실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부족한 부분은

- 지역문화의 先導 기능을 담당할 주도집단의 형성

1) 목포대 교수(81-94), 공주대 박물관장(95-97),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01-04),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역임. [현재] 공주대 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 객관적 지역문화자료 최대 확보(자료뱅크)
- 학제적 연구인력의 총합(싱크 탱크)

등으로 요약되는 바, 바로 이를 보완할 대안 장치로 “지역학”이라는 학제적 연구와 조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2. 지역학 연구와 활동 흐름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으로 지역별로 자기 문화·역사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연구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료 발굴과 수집, 연구도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문화관광이나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브랜드화 하여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졌다. 이런 활동과 사업들이 축적되면서 ‘지역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확산되었으며, 현재 민간이나 대학 내 연구소 안에 머물러 있던 지역학이 이제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역학 전문 기관으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학을 필두로 인천학·부산학·경기학·영남학·호남학·충청학·강원학·제주학 등의 이름으로 지역학 전문연구 기구가 마련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산학·전주학·안동학·용인학·천안학·평택학·성남학 등등을 비롯하여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은 문화다양성의 보고이며, 지역문화는 한국문화 전반의 총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마치 한국학이라는 큰 꽃밭에 지역학이라는 서로 다른 색깔, 종류의 꽃들이 만개하였을 때 각기 독특한 향기와 자태를 뽐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문화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한국학 꽃밭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꽃밭으로 거듭나고 완성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기 문화의 실제, 자기 문화의 특성과 성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지역학이다. 지역학은 이러한 지역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들 지역의 고유하고 특화된 자원을 계승 활용하고 특화시켜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양한 전공 연구자들의 융합적 연구에 의해 생산된 지역학 연구결과물들은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적 정보와 자료, 스토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학 연구는

- 지역 문화정체성 밝히기(지역특성, 지역민 주제)
- 분야별 전문성 벽 허물기(현황과 과제, 통합적 사고)
- 정책 및 개발에 문화 반영하는 마인드(교육과 활용)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계승하며 공유하고 향유하게 하는 역할까지를 완수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지역연구가 두드러지게 활성화되는 현상은, 국가가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을 보다 정확히 알고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과도 상관된다.

그리고 지역학 자료(원형콘텐츠)를 수집하는 분야별 연구자, 그리고 이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전문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정립하려는 개발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구조가 절실하다. 그럴 때 지역문화자원의 활성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역학 씽크 탱크이고, 여러 전문연구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상생적 발전도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학연구소나 제주 탐라문화연구회나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가 여러 학문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사례가 되며, 목표나 내용상에는 편차가 없지 않으나 서울학·영남학·인천학·충청학 등등 지역별로 지역학 연구의 움직임과 기관들이 생겨나 활동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 엄밀한 의미의 지역학 연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학의 선도 사례들**

- 일본 가나자와의 가나자와학(金澤學)
-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na)의 창조도시
- 중국 안휘성 徽州大學의 휘주학 코드
- 한국의 安東, 濟州, 木浦

*** 공주학연구원 기본방향**

- 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충남공무원교육원 통합 기능 기대
-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공동추진. 기본적으로 공주의 특수성과 현안과제를 감안한 官·産·學·研의 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대학의 강점인 다분야 인력 풀 참여, 활용. 공주의 브랜드가치인 백제문화연구,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분야를 기본으로 지역개발, 참여문화, 창작예술, 생태, 교육, 여성 등의 분야 연구소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 : 조사연구, 학술사업(공주학, 공주의 정체성, 역사문화특성)
- : 평생교육활성화(시민, 학생, 공무원) : 시민강좌, 교재편찬
- : 공주관련 자료아카이브 : 수집, 정리, 분류, 편찬
- : 정책개발(시 현안과제, 중점과제, 대안과제)
- : 공주의 경쟁력과 특성화, 취약분야 대안 연구
- : 시민활동, 주민참여 사업 지원, 대외 홍보, 국제교류

*** 천안학 성공 조건(?)²⁾**: 지역학의 성격 규정, 소통과 연구로서의 지역학 동시추구, 지역학 추진 네트워크의 구축(추진체의 단일화), 정치적 시각의 배제, 해당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지와 후원, 지역 커뮤니티의 공감대 형성, 관의 주도적 성격 배제, 강의주제선정 및 강사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2) 경기지역학 활성화 토론회(14. 9. 17) ; ① 김장환, 소통으로서의 용인학, ② 김해규, ‘평택학’의 현재와 미래, ③ 허홍범, 지역학 연구, ④ 심재권, 천안학 강의, ⑤ 윤종준, ‘성남학’연구성과와 과제, ⑥ 전은경, 안산학

3. 지역학, 어떻게 할 것인가? - 과제와 방향 -

지역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역자료의 량과 질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학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지역의 특성을 전해주는 지역 자료들을 철저하게 정리·연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 정체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첫 단계는 객관적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기초자료의 수집·정리·해석 없이, 선입관에 의거하여 몇몇 특수한 자료를 꿰어 맞추는 식의 성급한 연구들은 자칫 사상누각으로 끝날 위험성이 크다.

지역적 정서와 전통, 토양(특수성)을 몰각한 채, 전문성만 앞세워 행해지는 보편론의 강요, 현실감 부족한 이상론 제시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할 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지역의 실정을 확인할 기초자료가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게 표집 되어 있거나, 아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지역학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역 기초 데이터들을 마련하는데 여러 학문 분야 종사자들이 합심하고, 인력과 예산,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범위와 대상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 중심의 역사나 민속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자연, 지리, 사회, 역사, 예술, 의식 등에 이르는 지역민의 문화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역사와 지역문화는 상대적 계층성을 가진 문화 집단들이 상호 협조, 경쟁, 타협하면서 이루어낸 지역공동체의 산물이다. 크게 보면 역사나 각 분야별 문화의 내용들은 이러한 각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와 상충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 발전하였다고 생각되고,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상충과 타협의 변화과정 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지배와 피지배층의 문화가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그 위상을 마련하였나?, 나아가 그 유기적 관계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적 특수성·차별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과 시기의 차이, 그리고 계급성과 상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때, 자료의 해석상에서 왕왕 발견되는 바처럼 '같은 자료'가 전혀 반대의 논리에 이용되는 우는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문화자원 활용과 문화연구는 별개가 아니라 그것은 선후의 문제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되며,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이나, 흔히 지적되는 본말의 전도나 원형 훼손이 나타나게 된다. 부연하면 지역문화 자료조사 수준은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 다양한 원형콘텐츠가 철저하게 수집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면 ① 문화 원형콘텐츠 발굴에 소홀 → ② 지역문화 특성적출, 선정의 객관성 상실 → ③ 자원화 가능한 콘텐츠 개발 부진과 무관심 → ④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 ⑤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로 이어져 결국 외국의 사례를 엿보면서 포장하는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지역특성 不在, 顛倒된 컨셉' 등과 같은 경향이 만연되게 되는 것이다.

콘텐츠의 특화와 차별화

미국의 미래학자 Peter Druker(1909~2005)가 “전통문화는 미래산업의 승부처”라고 강조하였듯

이 역사도시의 문화환경과 유산들은 마치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같이 고유가치, 부가가치를 지닌 미래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다. 이들 문화자원의 가치를 바로 알고, 공감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화 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가 이들 전통문화 자원들 중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다. 문화 콘텐츠의 성패는 원형 콘텐츠의 “내용과 질, 價値”에 달려 있다. 즉 문화콘텐츠 개발은 ‘특이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그 가치를 특화’하는 것인데,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장기적·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투여되는 노력의 몇 배 이상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문화기술과 연계하여 수요자에 제공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획, 기술력”으로 경쟁과 승부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매우 미흡하고 불안정한 모습인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문화기술자들의 전통문화 원형과 컨셉에 대한 이해 노력, 그리고 문화의 주체, 문화원형 연구자와 콘텐츠개발자들의 교감 확대 등이 직면한, 아직도 미흡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하겠다.

연구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라는 구체적 개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콘텐츠개발자(활용자)들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다. 先後, 共生, 相生, 相補의 관계 의식이 부족하여 서로를 외면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원형연구자들은 콘텐츠개발 방식에 기초적 지식이 부족하며 진정성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재가공을 전제로 하는 콘텐츠의 특성과 수요층, 창의력 고려 부분을 예시하여 주면 좋을 것이다. 한 걸음 씩 상호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계승, 교육

다음으로 유의할 것이 바로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주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게 하는 노력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주민들이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계승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면 문제이다. 좀 더 감각적이고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챙기며, 가장 성실한 문화지킴이가 된다면 그들은 문화를 계승한 최대의 수혜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 수요층의 기대와 참여문화의 확산은 대세이다. 현대인들은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질적 욕구보다 지적·정신적인 부면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다. 문화 향유층이 과거처럼 특수한 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대상 내용도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도 전통·과거지향에서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 고려할 모델이 바로 지역문화 ‘시민문화대학’의 운영이다. 주민의 지역사랑 및 정주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학 관련 인문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시민문화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학은 인문교육과 지역성 강화에 직결되는 화두이기도 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도 지역학 연구와 지역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된다. 이는 일부 학자들이나 대학에서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지역학은 예를 들면 지역의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등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종합 인문교양교육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 환경은 각기 상이하고 차별성이 크다. 특히 지역문화 자료는 어느 한 분야 연구자의 특수한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연구 지표가 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분야와 문제의식별로 다를 수 있고, 그런 까닭으로 여러 분야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찾아야만 종합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 준비할 일은 지역별 특성을 철저히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학 교재의 발간(계층별), 지역학 강사의 확보, 학습동아리의 양성 등등이다. 이는 문화연구자와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행정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학, 향토사, 지역유적 답사, 지역문화 정신의 이해 등 지역별로 특화된 강좌를 지역문화 연구자와 인문학 연구자, 그리고 지역 내 교육현장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공동토의를 통해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문학 연구자는 관련 연구를, 교육 전문가는 연구결과를 외화시킬 수 있는 강좌를, 예술가는 지역민의 창작과 문화향수를 연계 발전시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과 지역문화자원

최근 필자는 지역문화가 현대적으로 계승되려면 창작예술과 접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물론 이는 필자의 창작예술에 대한 짝사랑일 수도 있고, 문화의 미래를 겨냥한 주장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와 창작예술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를 무용의 예로 생각해보자. 무용예술의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영역은 “지역문화 소재를 선택하여 예술로 창작하는 방안”과 “지역의 전통문화 중 무용적 요소를 찾아서 계승하는 방안”일 것이다. 즉 A의 경우는 문화연구자들과 연계하면서 이루어질 것이고, B의 경우는 무용예술가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문화 연구자는 무용 부문에서의 활용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콘텐츠 정리에서 무용의 측면은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무용 연구가들도 무속이나 민속놀이에서 무용적 요소들을 표집하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피상적일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아무리 예술적 기교가 배어있다고 하더라도 무용가들이 콘텐츠 소화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역민들로부터 ‘정체성이 담겨진’ ‘자신들의’ 예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문화는 점차 다양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이로 나다운 것,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자기 것으로 체감하기란 쉽지 않으며, 나아가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예술 활동이 그치지 않는 생명력과 추진력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특히 지역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그러한 창의적 생명력은 더욱 강하고 끈끈한 전통으로 포장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 이들 지역 문화예술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재창조.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가치와 경쟁력은 다른 어느 장르보다도 클 것이다.

따라서 무용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이 살아 있는 무용예술 소재나 콘텐츠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역사와 문화 경험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전해졌는지를 무용가의 입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혹여 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은 무용부문의 전통적 자원이다”라고 어지럽게 말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무용예술가들이 전통적.지역적 문화 기반을 도외시하면서 “왜 무용분야를 무시하고 외면할까?”라고 반문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제적 연구와 상생, 협력

다음으로는 학제적 연구를 통한 지역학의 완성에 관련된 것이다. 지역문화연구는 자발적이고 지역애를 바탕으로 성숙해온 특이한 연구경향으로 참여 연구자의 학문영역이나, 성향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한편 학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전문연구자에 비하여 지역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향토사연구자들은 애석하게 '연구자'가 아닌 '안다니'로 보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전문학계의 경우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지 지역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지역학의 연구나 활동경향을 보면 전문인력 사이에 연계 파트너십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전문인력 사이에 인간적 교류가 없으며, 상대방의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상호 공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학제적인 마인드로 지역학을 구상하는 지역 연구자는 언필칭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듯싶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과 대응력의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바야흐로 지역 문화연구는 학제적 연구와 융합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만 기대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의 1차적 연구과제는 역시 다양한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배경, 실정, 성격(지역성)을 구분하고 설명해 내는 일,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학에 동참할 연구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지역학의 기초자료 정리는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관광, 문화산업 등등의 분과 학문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학에서는 이러한 분과학문의 벽이 높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논의가 자유롭게 진전되기 위해서 제기된 대안이 바로 학제적 연구이다. 그리고 탁상의 이론뿐인 학제적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學際的 研究(Interdisciplinarity)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지역학인 셈이다. 그것이 바로 지역학 씽크 탱크(Think Tank)이고, 그 같은 전문연구자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상생적 발전도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또, 문화자원 가치계승과 활용 면에 있어서 전문연구자들의 무관심과 방기는 문제다. 전문연구자들의 무관심과 회피는 객관성을 잃은 문화 콘텐츠가 활용 마니아들에게 주어져 지역정체성을 왜곡·굴절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과 지역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는 문화 수용층인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역문화에서 멀어져 가게 만든다.

희망적인 것은 자료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상호 연계, 혹은 삼자가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이었던 한다. 그럴 때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상징성·정체성·경쟁성·투자효율성 등등도 점검이 가능할 것이고, 여러 유형별, 그리고 수요층의 수준별·계층별, 나아가 활용 방향을 감안한 콘텐츠 발굴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3자간의 관계를 필자는 '三無'라고 표현해 보기도 하였는데, 3자 간의 교류와 교감도 없고, 상보와 상생, 공생관계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전문가로서 상대의 역할과 영역을 존중해 주지도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콘텐츠 정리자는 소프트-하드웨어의 연계체계 속에서 활용의 방안을 고려하고 콘텐츠를 정리하여 주고, 이를 응용할 개발자들은 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럴 때 지역문화자원의 활성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몇 가지 지역학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하여 주제넘은 이야기를 하여 보았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노력 속에 지역학의 '알기(연구)와 알리기(교육), 챙기기(조사), 활용하기(활용), 상생, 소

통하기(연계)'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지역학은 마니아층에서 지역민들로 그 수요 및 향유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확보'라는 지역학의 대 전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지역학의 의식과 수준도 향상되고, 지역 정체성과 미래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률적 대응, 문화영역 주체간의 파트너십,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정책전환 등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역동성으로 지역학은 역사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경제, 문화정치에 이르는 지역사회 전체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는 지역학 운동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재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 저서] 『조선후기 향약연구』(1990, 민음사, 공저), 『생활문화와 옛 문서』(1991, 책임연구, 국립민속박물관), 『향토사연구의 이론과 실제』(1992, 공저, 향토문화진흥원), 『향토사의 길잡이』(1995, 공저,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수서원), 『조선시기 촌락사회사』(1996, 민족문화사), 『역사속의 전라도』(1999, 다지리), 『지역사와 지역문화론』(2001, 문화닷컴),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실제』(2002, 책임연구, 국사편찬위원회), 『근 현대사窓 열기』(2003, 책임연구, 국사편찬위원회), 『충남의 역사와 정신』(2006, 충남역사문화원), 『전통사회와 생활문화』(2006, 공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2008, 민족문화사), 『충남의 문화유적』, (2009, 충남역사문화원), 『충남의 민속문화』(2010 공저, 충청남도, 국립민속박물관) 등

시흥의 교육자 최극렬 선생의 정신 유산 고찰

-시흥의 인물 세미나, 최극렬 선생 발제문-

정원철(시흥문화원장)

1. 교육과 우리 사회

최극렬 선생을 떠올리면, 한 생의 온기를 온통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자신의 체온을 모두 내주고, 귀천하신 적선이 떠오른다. 최극렬 선생은 구체적으로는 과거 시흥군 군자면, 현재 시흥시 군자동, 월곶동, 장곡동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에 몸 바쳤다. 선생은 이 나라 청소년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올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참 교육자였다.

교육의 시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생존을 위한 본능적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니,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일은 인간의 탄생부터 시작된 일이고,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이후로 율법이 생기면서 공동의 질서를 교육시키는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대국가인 고구려에도 경당과 태학이 있었고, 신라에는 청소년 교육제도로 화랑이 있었다. 그러나 전제 왕정 하에서는 제한적 신분에게만 교육이 실시되었었다. 근대 국가로의 진입과정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고루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었지만 그 실천의 길은 멀기만 하였다.

시대마다 현실의 갭을 메우는 선각자와 실천 교육자가 나타났으니, 우리 시흥군에서는 최극렬 선생께서 그 역할을 하였다.

(1) 교육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교육법 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이란 인간이 삶의 보람을 충족시키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의 교육이란, 왕을 보필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주를 이루었다. 즉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의 육성이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우리의 건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교육이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은 그에 더하여 또 다른 목표를 추가하였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고, 문제에 대처하여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 행복하고 만족한 한 생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완벽하게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다. 최극렬 선생께서 활약했던 일제 강점기에는 더더욱 그러했다. 양반과 적서의 차별은 없어졌다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문명의 혜

택이 덜 미친 곳 역시 그러했다.

(2)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의 초·중등 교육 현황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전형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쳤다. 조선교육령에서는 복선형 학제를 채택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별도로 교육했다. 조선 내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는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며, 수업연한과 수업내용에서도 차등을 두었다. 인구 비례상으로도 일본인 학교의 수가 조선인 학교의 수보다 월등히 많았고, 교육예산도 분리되어 일본인에게 훨씬 많이 책정되었다. 전문교육기관인 전문학교는 일본의 전문학교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일본의 전문학교와 달리 약간의 전문적 기예를 교육하는데 그쳤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초등교육은 보통학교에서 이루어졌다. 6년을 공부해야 고등보통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해 놓고,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이 3년에서 4년에 불과했으며, 교과목 구조에서도 차별하였다. 또, 의무교육도 아니어서 사친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해야 했다.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의 시수보다 주당 3~8시간이 적었으며, 교과목도 일본어에 편중되어 식민통치에 순응하고 식민지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의 조선총독부는 1918년부터 3개의 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두는 '3면1교주의' 시책을 시행하여 1922년 완료하고 1928년부터 '1면1교주의' 시책으로 1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1936년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학제에서의 차별을 두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게 만든 차별은 없애지 않았다.

차별화된 교육이었지만 보통학교 학생들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야학과 강습소 설립이 많았다. 1920,30 년대에 전국적으로 약 6만 여개의 야학과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야학은 학력인정이 안 되었고, 무료교육이 많았으며, 한글이나 간단한 셈법을 가르치는 정도였으나, 강습소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을 가르쳤으며 졸업 후 공립보통학교로 편입도 가능했다. 또한 야학과 비슷한 교육기관으로는 개량서당이 있었다. 개량서당에서는 한문교육과 함께 근대교육을 병행하였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개정조선교육령을 제정했다(1922.2).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할 수도 있게 하였으며, 중등 교육인 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자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5년과 4년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학교를 확충시키지 않아서 보통학교와 조선인소학교 입학 경쟁률은 평균 2~3:1이었으며, 대부분의 고등보통학교는 기본적으로 10: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성제1고보나 평양교보같은 명문 고등보통학교는 40: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등보통학교 졸업은 친일여하에 따라 출세의 관문이기도 했고, 독립과 계몽의 파수꾼이라는 고된 삶의 역정에 나서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전쟁에 대비하여 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한다. 조선인에게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전쟁 협력을 위한 유화책을 편다. 초등학교를 1면 1교로 확장시키고,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일본인과 한국인을 함께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연한을 '최대 6년'으로 명시하여 모든 보통학교가 반드시 6년의 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통학교가 4년제였으며,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4년제가 계속 유지되었다. 시흥 군자면의 군자보통학교, 수암면의 안산보통학교 역시 4년제여서, 중학교 진학이 불가하여 면민들의 반발이 드셨는데, 안산 보통학교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경찰이 인근의 한문사숙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보통학교(소학교, 국민학교)는 사실상의 최종학교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보통학교의 연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보통학교의 확충운동을 벌여나갔다. 당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도 그러했지만 보통학교 졸업자는 사회에서 높은 대우를 받았다. 보통학교 졸업자가 보통학교 비졸업자보다 관직을 얻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으며, 은행과 회사, 상점의 취업에도 보통학교 학력이 필수로 되면서 보통학교와 그 졸업자의 사회적 위상은 일제강점기 내내 높았다.

(3) 일제 강점기 시흥군 초·중등 교육 현황

1920년대 시흥지역에도 학교가 들어섰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통한 관직진출이라는 전통적 입신출세의 길이 이제 학교교육을 통한 관직 또는 사회진출로 새롭게 바뀌었다. 민중의 교육열이 높아졌고,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다. 학교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지역 유지들이 학교를 세우고 유지, 발전시키자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하였다.

당시 시흥군에 중등교육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보통학교는 1면 1교(10개 면)를 개교하였으나 수업 연한의 차별이 컸다. 군포·영등포·과천의 공보와 사립 은로(恩露)만이 6학년 보통학교였고, 나머지는 4년제이므로 고등보통학교 진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4년제 보통학교만 수료해서는 ‘편지 한 장 못 쓰는’ 수준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를 살펴본다.

“시흥군 수암면(秀岩面)에 있는 안산공보교(安山公普校)에서는 입학지원자가 전무하여 경찰관의 힘을 빌어서 관내에 있는 각 한문사숙(漢文私塾)을 폐쇄케까지 하였다는 거짓말 같은 정말인 진기한 일이 있다는데 일반이 그와 같이 입학할 시키지 않는다는 원인을 듣건대 전기 안산학교는 4년제인 관계로 그 학교를 마쳐도 상급학교에 입학치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자기 성명 하나 변변히 알지 못한다 하여 차라리 사숙에서 한문이나 가르쳐서 농사에 종사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이라더라.”

『동아일보』(1928년3월20일)

시흥군 군자면의 군자공립보통학교의 수업연한 6년 연장 건은 10여년을 끌고 나서 1940년 5월 8일에야 겨우 6년제로 확정되었다. 면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동아일보에 잘 나타나 있다. 진학이 안 되자 맹모삼천지교의 교육환경 좋은 곳으로의 인구 이동이 나타났다. 이를 지역사회의 위기로 간주한 지역사회 유지들이 나서서 학년 연장에 노력하였다. 1933년에는 일차로, 부족한 학년을 강습소로 대체하였다. 경기도지사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당국에 진정을 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학년연장까지 강습소 수용, 시흥 군자면서」

시흥군 군자공보교 학년연장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군자면 유지 최준홍(崔俊鴻), 이명규(李明圭) 양씨 외 제씨가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도와 군당국에 진정서 혹은 탄원으로 학년연장운동을 오늘날까지 명렬히 노력하였던바 당국에서 소화 12년 전에는 허락할 수 없는 방침인즉 당분간 강습제로 채용하라 하므로 부득이 지난 (1934년 11월)19일 오후 2시에 군자면민대회(君子面民大會)를 군자보통학교 내에서 면장 류지영(柳志英) 씨 사회 하에 개최하여 문징명(文徵明) 씨의 상세한 경과

보고가 있는 후 즉석에서 군자강습소 경리회를 조직하고 협의한 결과 정식의 학년연장이 될 때까지 강습소에 대한 제반경비 연 1천 원을 면민이 부담한다는 바 18등 이하 1,500호는 면제하고 17등 이상 538호가 부담기로 하며, 적립금 5천 원으로 우선 학교를 증축하여 명년 신학기부터 5학년에 해당하는 강습생을 교수하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동 4시에 폐회하였다 한다.△ 임원 : 회장 류지영(呂志英), 부회장 최준홍(崔俊鴻), 이사 장순봉(張淳鳳), 안○묵(安○默) 외 13인, 평의원 이명규(李明圭), 문창영(文昌永) 외 8인”

『동아일보』(1934년11월22일)

기존의 유지집단과 면장이 함께 군자면 면민대회를 통해 군자강습소 설립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면장이 나서서 6학년제로 변경할 수 없다는 도당국의 입장과 4학년 을 마친 학생들의 진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0년대 내내 군자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보통학교 학년연장 문제는 1940년 5월 1일 군자소학교의 6년제 승인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당시 시흥군 군자면의 학습열은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늘리는 것뿐이 아니었다. 보통학교로는 교육 수요를 다할 수 없어, 비인가 교육기관이지만 야학이 새겨났다. 죽울리에서의 야학 역시 열정 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았었다. 야학 지원자의 숫자가 늘고 가르칠 곳이 없자, 유지들은 땅을 희사하고 기부금을 냈다. 아래에 죽울리 야학 강습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를 본다.

「야학교(夜學校) 건축, 죽울리에서」

시흥군 군자면 죽울리 유지 수씨(數氏)는 재작년부터 노동야학회를 당지 예비당 내에서 개최하고 생활고로 혹은 학년 연령 관계로 전면 입학할 기회가 없이 가가 한자 배우지 못하고 여금(如金) 세월을 도비(徒費)하는 무산아동의 문맹을 면(免)하여 주교자 여러 청년들의 열성 있는 무보수의 교수로 3년 동안 많은 아동을 교양하여 오던바 해를 더할수록 입학지원자가 점점 증가하여 감을 따라서 현 교사(校舍, 예비당)로서는 도저히 수용키 불능함으로 동 야학경영자인 김규흥(奎興), 안철재(安喆載), 김청환(淸煥), 안흥규(安興奎) 등 제씨의 성의 있는 노력의 결정으로 동리 유지 제씨의 많은 찬동을 얻어서 목조 건평 12간(間, 朝鮮間數)의 교사(校舍)를 건축하고자 수일 전에 기공하였다더라.

『동아일보』(1928년4월8일)

일제강점기의 야학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무산자의 자녀를 받아들여 교육하는 곳이 많았고,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곳도 있었다. 야학 교사는 대부분 지방의 유지청년이었는데. 수업연한이 보통 1년이어서, 과목은 조선어, 일본어, 산술, 기초 한문을 가르쳤으며 한글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야학은 1930년대에 들어 일제의 탄압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야학은 민족적 성격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그 때에 설립한 군자공립보통학교는 현재의 군자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흥시 군자동에는 군자초등학교와, 군자중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1937년 수인선이 개통된 뒤에는 인근 달월역에서 인천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느는 등, 여전히 지역의 교육열이 높았다. 현재도 그렇지만 출세와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교육의 수요는 여전히 높다. 그러는 한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심신의 안정을 주는 교육, 나아가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전문성, 창의성, 인성의 종합적 배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 목표를 유지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향학열이 유난히 높은 지역이 있을 것이다. 현재 시흥시 군자동은 과거의 아름다운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애국지사 최궁렬

(1) 삼일 독립운동과 최궁렬

삼일 운동은 극소수 친일파, 친일지주, 예속 자본가를 제외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이 운동의 결과 일제의 무단 통치가 끝나게 되었고, 운동 이념상에서 복벽주의(復辟主義)가 청산되면서, 그 해 4월 11일 공화제 형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일 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독립투쟁이 격화되었으며, 한국인의 고등교육을 위한 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한국산 물품 애용과 근검·절제운동 등의 실력양성운동을 일으켜 백성을 깨우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지향하게 되었다. 일제는 강점 후에 한국인이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통해하지 않는 열등민족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열복(悅服)한다고 세계에 선전하였는데, 3.1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한민족의 의사를 알리고, 민중의 저력을 확인하여 한국 민족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최궁렬 선생님의 독립투쟁 운동은 소박하지만 열정적이었으며, 국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실천한 애국지사였다. 근년에 최궁렬 선양사업회를 구성한 선생의 제자들이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셨던 서울의 사촌 누이동생을 찾아가 증언을 들었다. 선생의 3.1 운동과 일제강점기 시절의 교육자로서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당시 오빠는 경성제일고보 3학년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오빠를 만나니, 너 내 책 가방 좀 가지고 빨리 집에 가라 나는 갈 곳이 있다 하였는데 나중에 3.1운동에 가담하여 종로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옥고를 치루고 퇴학당하고는, 독립을 하려면 주먹이나 무기로 싸워봐야 국민만 다치고, 오직 국민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투쟁을 하여야 독립을 할 수 있다며 교육자의 길을 택하셨다고 증언하셨다. 1921년 당시 교통이 불편하여 안양이나 부천에서 걸어 들어가야 할 정도인 군자면에 가서 군자학원을 교육하시다가 1924년 군자보통학교가 개교되어 상경하시고, 1925년 다시 배제고보 4학년에 편입하여 1927년에 졸업하셨다고 한다. 잡지사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대성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다가 1938년 안양 비산동에 학원을 설립하셨으나, 일제의 탄압에 사직하시고, 1940년 수암면 논곡리에 논곡학원을 설립하셨다가 해방을 맞으셨다.”

<2010년 6월 10일, 제자 증언록에서 발췌>

(2) 농촌계몽운동가 최궁렬

우리가 잘 아는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이야기와 최궁렬 선생의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심훈의 ‘상록수’ 소설로 잘 알려진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인물은 최용신이다. 심

훈 선생은 3.1만세 운동 당시 최극렬 선생과 함께 경성제1고보에 다녔는데³⁾, 1935년 심훈이 지은 장편 '상록수'가 동아일보 발간 15주년 기념 현상모집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쓰여진 바, 1908년생인 최용신은 1928년 함남 원산의 루씨여고보를 졸업하고 1929년 YWCA의 농촌계몽사업에 참가하였다. 황해도 수안(遂安)과 강원도 포항에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1931년 10월 YWCA 파견교사로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반월면(半月面) 샘골(천곡; 泉谷)에 파견되어, 예배당을 빌려 한글·산술, 성경공부 등의 학습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1935. 1. 23. 과로로 사망하였다. 최용신 선생은 나이 21세부터 26세까지 자신의 꽃 같은 젊음을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63번지에서 1901년 출생하신 최극렬 선생은 경성제1고보 3학년 때, 3.1 운동에 참여하여 퇴학당하고 서울에선 먼 거리는 아니나, 교통이 불편한 해변의 궁벽한 마을인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현 거모동)로 내려와 군자학원을 설립하였다가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로 들어 서기 위하여, 늦은 나이에 배제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공부를 마쳤다. 선생 주변은 항시 일제의 감시가 따라 다녔다. 1938년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현재 안양시 비산동)에 안양 학원을 설립하였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사직하여야 했다. 당시 함께 가르치던 심수섭 선생의 증언으로는 왜경이 자주 찾아왔고, 여름방학 때 어느 날 야유회에서 술이 거나하더니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증언을 하였다. 이후 선생은 수암면 논곡리에 논곡학원을 설립하고, 시흥군 수암면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선생은 일관된 신념으로 일제강점기하의 탄압과 감시에도 교육운동, 교육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따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교육사업을 한 애국자였다. 마침 당시 시흥군이었던 안양, 수암, 군자에서 활동하였다. 선생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월곶동, 장곡동, 군자동에서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54년 국가의 공립 중학교로 헌납하고 노년을 월곶동의 염전사택에서 기거하다가 1963년 영면에 들었다.

3. 시흥 중등교육의 산실, 군자고등공민학교

(1) 중등교육의 수요와 군자고등공민학교

1946년 공민학교 설치요령에 의해 시작한 공민학교는 전 국민 교육이 초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시절에 야학과 함께 초중등교육의 일익을 담당했었다. 또한 1948년에 중학교 과정의 학력 미인정 교육기관인 고등공민학교가 만들어졌다. 공민학교는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3년제 공민학교가 있고, 중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공민학교가 있으며 수업연한은 1~3년이었다. 졸업을 하여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공민학교를 졸업하면 중입검정고시를,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면 고입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이 가능하였지만, 교육수요가 높아 공민학교는 큰 기능을 하였다.

3) 심훈 선생은 1901년생으로, 1915년에 경성제1고보에 입학하셨고, 최극렬 선생께선 1901년생이지만 1916년에 경성제1고보에 입학하셨으니 1년 선후배 였을 것이다. 심훈 선생은 삼일 운동 이듬해 중국으로 이주하셨고, 최극렬 선생은 잡지사예 근무하시다가 시흥군 군자면에 내려가 군자학원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공민학교는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공민학교 1개교, 고등공민학교 4개교 총 5개의 학교가 남았다. 학령기에 이른 어린이들이 거의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된 것이다. 현재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어 공민학교는 자연스럽게 폐교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넘기는 학생들이나,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이주노동자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지만 정규교육에서 소외받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해능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여전히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시흥군에서, 현재 시흥시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는 공립중학교는 없었고, 고등공민학교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 무지내동에 소송고등공민학교가 생겼고 최공렬 선생께서 교감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선생은 월곶동의 어느 집 사랑방에 고등공민학교를 개설하였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점차 학생이 늘어났다. 지금의 장곡동 새터마을로 이전하여 흠바닥에 통나무를 놓은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하다가, 1952년 보다 넓은 교육터를 마련하여 현재의 거모동 산 58번지로 고등공민학교를 이전하였다. 현재의 군자동 중학교 자리이다. 군자고등공민학교를 헌납하여 군자공립중학교가 된 것이다.

(2) 군자중학교의 태동과 성장

군자중학교 뒷산은 당시에 민동산이어서 학교를 지을 재목을 구할 수 없었다. 어느날 최공렬 선생이 오셨다. 우리 마을 원용석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댁에 가서 교실을 지으려는데 재목으로 쓰게 버드나무 한 그루만 주십사 하였다. 며칠 있다 인부 4명이 와서 베어 목도 하여갔다. 학생들은 체육시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꿩이, 삽을 가지고 새재에 있는 학교에서 현재의 군자중학교까지 걸어가서 터를 닦았다. 그리고 현재 군자동 체육회장으로 있는 이재민의 춘부장 이득섭 선생이 봉사로 목수 일을 해주었다. 지붕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을 펴서 4개 교실에 이어 붙이고 1952년에 개교하였다.

겨울이면 시골마을로 찾아가 논두렁, 밭두렁에 서 있는 버드나무 주인을 찾아가 한 그루 씩 얻었는데, 하루는 문석윤 선생님과 함께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별판에서 수수대 노적거리 안으로 들어가 허리춤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어 “이거면 점심 요기는 돼” 하면서 나누어 먹은 적이 있다고 한다.

1953년, 현재의 군자중학교 자리에서 군자고등공민학교 1회 졸업식을 하였는데, 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 넥타이를 보면서, 여자들 댕기를 매고 나왔다며 웃었다는 일화도 있는데, 곤궁한 가운데 오로지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임하신 최공렬 선생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954년에 중학교가 없는 농촌, 읍면 단위에도 중학교를 인가해준다는 문교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공립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면 모든 시설물이나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양해각서를 문서로 서명 날인하여 문교부에 인가 신청을 하여야 했다. 인가 신청하기 전날 조회 때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니 모두 울며 만류하였다. 거모동에서 양조장을 하던 정규창을 비롯한 지역유지들도 사립학교로 인가 신청을 하라고 만류하였었다. 선생께서는 “내가 돈을 생각해서 교육 사업에 손을 댔다면 아예 다른 사업을 했겠지요, 우리 지역은 가난한 농촌지역이어서 사립학교로 내면 교육비가 많이 부담되니 공립학교 전환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후 공립학교로 정식 인가되었고, 문교부에서 오학환 교장선생이 발령받아 왔다. 군자고등공민

학교는 2회 졸업생을 내고, 공립 군자중학교로 바톤을 넘겼다. 사립학교로 등록했으면 설립자로 추앙받을 터이지만, 극구 공립중학교로 전환하였고, 정식 교원 자격증이 없는 최궁렬 선생은 부교장 예우를 극구 사양하며 학교를 떠났다.

군자중학교는 2014년 2월에 60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군자중학교는 그간 지역사회에서 수다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로는 지역의 인재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나섰는데, 군자중학교 출신들도 군자인이라는 명예와 사명감을 안고, 일선에서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4. 초아, 희생정신의 사표 최궁렬

(1) 시흥의 참 교육자

최궁렬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경성고보를 다녔고, 배재고보를 졸업한 고학력자였기에 출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서 일신이 평안하게 살 수 있던 지식층이었다. 그런데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후 일관되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제 강점기 끝날 때까지 고향 같은 교육자 생활을 하였다. 해방 되던 해에 46살이었는데 10대부터 중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결혼도 않고, 일제의 강압 하에서 고통 받는 민중의 교육을 통하여 국민계몽을 꿈꾸었다. 최궁렬 선생은 잡지사 몇 년 근무한 경력을 빼고는 오로지 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 3·1 운동의 옥고를 치르고는 이내 시흥시 군자동으로 와서 군자학원을 일구었다. 군자보통학교가 생기면서 당신의 소임을 다 마치고 훌훌 털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배재고보에서 학업을 마쳤다. 몇 년 후 다시 현재의 안양시 비산동에 안양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일제의 압박이 심하여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는 현재의 시흥시 논곡동 한 지주의 부탁으로 논곡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이후 선생은 귀한 청춘을 당시 시흥군의 교육 사업에 모두 바치었다.

해방 후, 시흥시 무지내동에 있는 한인고등학교(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성고등공민학교에 교감으로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청년 시절에 군자학원을 설립하였던 군자지역을 다시 찾았다. 안정되고 평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다시금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해변 가 시흥시 월곶동에 자리 잡았다. 육이오 전쟁이 발발하던 해, 당시 수인선 달월역에 왔을 때,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이 공부하는 않고 말썽만 피우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어 월곶리 사랑방을 빌어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지금도 월곶동 자연부락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장곡초등학교로 다니는데, 그 벽지에 동지를 튼 것이다. 문을 열자 곧 학생 수가 늘어나서 다시 새재(현 시흥시청 자리)에 학생 정덕종 아버지의 배려로 농사창고 건물을 얻어 입주하였다. 최궁렬 선생은 학생이 늘어나자 궁리를 하였다. 보다 넓은 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교육자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스위스 빈민교육을 주장하며 전쟁고아를 가르친 헌신적 교육자로 명성을 떨치는 페스탈로치가 있다. 그리고 이웃 인천에는 교육자 길영희가 있고, 우리 시흥에는 이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교육자 최궁렬 선생이 있다. 최궁렬 선생은 당시의 제자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반드시 이 사회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구를 이끌고 시흥 사회에 소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2) 늦은 결혼, 가정도 희생하다

선생은 우리 나이로 50살인 1950년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생활 내내 가난하였다. 아마도 오지에서 교육적 신념을 수행하다보니 가정을 꾸릴 경제적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 결혼하지 않으려 하다가 뒤늦게 결혼한 것인 듯하다. 결혼 생활을 김중연씨 집 행랑방에 기거하였는데, 끼니를 어떻게 잇는지 모를 정도로 가난한 살림이어서 뒤늦게 둔 아들이 한 겨울 찬방에서 울며 뒹굴어야 했다고 한다. 부인 이화진 여사는 행상으로 사발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녔는데 제자 원영희 선생이 당시 자신의 집에 사기그릇을 팔러 온 사모(師母)를 무심히 보았다가 성인(成人)이 되어, 생각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다는 증언록도 있다. 현재 최극렬 선양사업회에 함께 하고 있는 김중연 선생의 말로도 어느 해인가는 명절이 다가오자, 사모께서 명절 아침에 빈 솥에 물을 붓고 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남들 보기에 남사스러웠을 테고, 명절에 불 때는 연기가 나지 않으면, 이웃이 부담스러워할까 조심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 시절 많은 사람이 가난했지만, 당신의 재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없는 것도 아닌 최극렬 선생은 소신껏 교육사업에만 열중하다가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국가의 지원이 전연 없는 재정에, 몇 푼 안 되는 월사금이 모이면 교사들 월급 충당하는 것도 빠듯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은 어려웠지만, 학교에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종로 고향에 선생의 아버님이 남긴 부동산이 있다며 학교 짓는데 쓰겠다고 팔았다는 일화가 전하며, 부인이 살림에 쓸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 교실이 없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지경인데, 집안일이 문제냐고 하였다고 한다. 목표는 크고 재정은 어렵다보니, 자신과 가정이 함께 희생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가족마저 희생의 대열에 서서 시흥의中等교육의 산실인 군자고등공민학교를 개설하였으니, 이는 곧 성인(聖人)의 마음과 진배없다 할 것이다.

퇴임 후, 군자학원(군자 강습소) 당시의 제자인, 소래염전 지청장으로 있던 김인준 씨(증언록에 기재된 김중연의 백부)께서 월곶동 산80번지의 염전 사택을 마련해 주고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 다시금 동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살았다고 한다.

우리는 덕과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에 정통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러 받들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 시흥문화원에서 시흥의 인물로 선정한 최극렬 선생은 애국지사이면서 진정한 교육자로서, 오랜 세월 추앙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서훈을 받아야 할 분이다. 그분의 희생으로 시흥시 초, 中等교육이 오늘에 이른 것이니, 군자중학교 동문을 비롯한 시흥시민 모두가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일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군자공민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다.

헌납이란 자신의 귀한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는 행위이기에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종종 뜻있는 이들이 귀천(歸天)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짓곤 한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본디 사회의 것이니,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 존경의 시선을 보내며, 헌납이란 일시적이든 아니든, 일부이든 전부이든 모두 귀한 일이다.

일반인이, 비록 배운 지식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한평생 쏟아 부은 마지막 결과를, 자신의 생이 남아 있고, 가족이 곤궁한데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납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어찌 보면 바보나 하는 일로 보인다. 그렇게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사회에 바치는 헌납은 대체 어떤 것일까.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자신이 새로이 탄생할 때에 그럴 것이다. 종교 공동체 생활에 합류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일평생 자신이 쌓아 온 모든 것을 다 국가와 사회에 헌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다.

최공렬 선생께서는 바보셨습니다. 출세의 길도 마다 않던 바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어려운 길로만 찾아 살아온 바보이셨습니다. 청소년을 교육시키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이 내 가족 소중한 줄 모를 리 없습니다. 알지만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바보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는 결혼도 가정도 모두 희생하셨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변변하게 월급이라고 부인에게 쥐어줄 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납하고 남의 집에 의탁하여 살다 저 세상으로 가신 바보 성자이십니다.

우리 시흥시는 최공렬 선생에게 진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사표(師表)인, 아니 성인(聖人)인 최공렬 선생을 잘 받들어 후세에 전할 수 있을까. 삼일 운동 후 일제의 압박에도 국내에 남아, 교육구국의 길을 살다 간 최공렬 선생, 해방 후, 모두는 일신의 출세와 생존 경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키우면서도 무지로 인한 불행을 막아주는 것만을 기뻐하며, 교육계에 남아 자신을 희생하며 한 생을 지나신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의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만 하신 조용한 손길, 그 분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 농어촌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벅하면서 살아야 할 무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인 무지를 쫓아내는데 한 평생 자신을 희생하여 살다 가신 최공렬 선생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성인(偉人)이다.

[토론] 시흥의 교육자 최공렬 선생, 시흥정신으로 이어가다

이형수(전 최공렬기념사업회장)

1. 최공렬 선생의 군자중학교 설립과 선양사업

제1회 경기지역학 포럼에서 ‘시흥의 교육자 최공렬 선생의 정신유산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 감개무량이다.

필자는 1937년 시흥시 군자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집은 군자동 402번지였고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다. 현재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이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최공렬(崔兢烈, 1901-1963) 선생은 필자의 스승이다.

필자는 1951년도에 군자고등공민학교(현 군자중학교) 입학하여 처음 최공렬 선생을 만났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어 1954년 2회로 졸업을 하였다. 졸업하는 그 해가 교육부에서 군자중학교로 정식 인가되던 해이다.

인가된 군자중학교에서 최공렬 선생은 교원자격증이 없어 교직을 계속 잇지 못했지만 학교 재산 모두를 희사하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결정이었다. 주변에 보면 사립학교들이 즐비하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가 학교 덕에 집안이 산다는데 우리 최공렬 선생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선생의 가족들의 어려움은 매우 많았다.

최공렬 선생은 학교에서 역사와 한문을 주로 가르쳤다. 선생님을 볼 때면 늘 생각에 깊이 잠겨 계셨다. 잘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 분은 늘 나라 걱정과 학교설립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지금이야 재화와 자재가 풍족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최공렬 선생이 학교를 짓는 것은 발품을 팔아 이 동네 저 동네를 뛰어 다니며 자재가 되는 나무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렇게 학교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나와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짓는데 나서서 학교 흙벽에 수수깡을 엮어 황토를 물에 개어 그걸 벽에 바르고 흙이 모자르면 황토를 파서 저 나르고 그렇게 함께 땀을 흘려 일군 학교가 군자중학교다.

이렇게 당시 시흥군 지역에 최초로 중등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선생님의 업적은 3.1운동 이후 교육입국운동을 결심하고 그러한 의지로 시작한 시흥지역에서의 연이은 학교 설립과 활동이



군자고등공민학교(현 군자중학교) 제2회 졸업기념 사진
앞줄 가운데 최공렬 선생

우리 시흥지역의 건실한 시흥정신의 모습이였다.

따라서 최공렬 선생의 이와 같은 발자취와 업적을 기려 필자와 동문들은 그분이 헌신한 군자중학교 교정에 최공렬 선생 공적비를 세웠다. 이것은 시흥지역의 교육운동에 헌신적이었던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 최공렬 선생 공적비 설립위원회'를 만들어 1989년 4월 27일에 세운 것이다.

이후 장학사업을 하며 2011년 시흥문화원과 '최공렬 선생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 '시흥의 인물'로 선정하여 선양사업(초중고교생 애니메이션 및 리플렛 제작)을 벌여 시흥지역에서 최공렬 선생이 참 교육자이자 선각자로 기억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벌였고, 그 자신은 1원 한 장도 써본적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선생을 기리는 차원에서 2013년에 시흥시의 후원으로 시흥문화원과



최공렬 선생 묘(시흥시 월곶동 섬산)

함께 최공렬 선생 묘소를 단장하고 앞에 작은 기념비를 마련하여 조출한 제막식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인 정원철 시흥문화원장의 각별한 애정과 도움으로 올해 제2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시흥문화원 주최)에서 '시흥의 인물'로 최공렬 선생을 발표(필자가 발표)하여 우리 시민들과 자라나는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었다.

2. 최공렬 선생의 교육입국운동이 국가공훈으로 인정되길 바라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주먹이나 무기로 싸워보아야 국민만 다치고 독립을 하려면 오직 국민을 가르치고 깨우치시어 사상적 투쟁을 하여야 독립을 할 수 있다.”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최공렬 선생이 교육입국운동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최공렬 선생은 교육자로서 그의 발자취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서의 탄압과 감시로 온갖 활동의 제한,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의 소용돌이, 학교 설립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겪은 어려움, 그리고 가족을 돌볼 수 없었던 개인적 어려운 형편도 최공렬 선생의 교육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오늘의 세태에 최공렬 선생의 교육의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교육의 목표를 위해 나아간 용기였고 그 작은 발로가 지금 시흥교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최공렬 선생이 남긴 것은 단순한 학교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의 삶과 교육입국이라는 정신을 대표한 것으로 우리 시흥시와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사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공렬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러한 일에 미진하지만 지금껏 70평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는 물론 이후 우리 시흥시민의 몫인데 그 세세한 일에 대한 언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껏 정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이끌어준 시흥문화원을 생각하면 필자 이후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가 최공렬 정신을 시흥정신으로



최공렬선생공적비(군자중학교 내)

로 올곧이 세울 수 있을 거라 자부한다.

그리고 여든을 바라보는 노구의 필자가 최공렬 선생의 제자로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이 어엿한 애국지사로서 국가의 공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선생님은 3.1운동 때 경성 제1고보 3학년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여 종로경찰서에 감금되었다가 옥고를 치르고 퇴학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학생신분으로 옥고를 치른 것이라 특정 기록이 남지 않아 우리들이 지금껏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공훈이 되는 것이 요원한 상태다. 앞으로 선생님의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최공렬 선생의 항일애국정신과 교육입국 운동이 제대로 평가되길 기대한다.

오리 이원익과 청백리 도시

이호성(광명문화원 사무국장)

1. 안민을 추구한 뛰어난 능력의 실무 관료

광명의 대표적인 향토인물인 오리 이원익(1547 ~ 1634)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료의 모범이었다. 그는 당대의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과 비교하여 시문이나 학문이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행정 관료였고, 청백리의 표본이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임진왜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이 이어졌던 시대에 40년간 정승에 있었고, 여섯 차례나 영의정에 임명되기도 했다. 전쟁의 혼란과 당쟁의 격화,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이뤄진 이원익의 관료로서 성공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물론 몇몇 사가들은 당쟁이 격화되던 시대에 오랜 기간 관료로서 승승장구한 것을 무색무취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란의 와중에 선조가 명으로 피신하려 하자 “임금은 사직을 위해 목숨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충무공 이순신과 서애 유성룡을 끝까지 변호한 일, 인목대비 폐비를 반대하다 유배당했던 사례를 볼 때 이 같은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원익의 관료로서의 성공은 어지러운 시대 그가 쌓아온 국왕과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원익은 실사구시를 실현한 유능한 관료였고, 실사구시의 정신은 백성들의 안민을 위한 것이었다.

이원익의 안민과 실사구시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안주목사 때의 일이다. 이원익이 안주목사로 발령이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랜 가뭄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백성들이었다. 이원익은 취임식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단기필마로 안주로 달려가 평안도 감사에게 1만석의 조곡을 대출을 받아 직접 해안가에서 곡물을 배에 싣고 백성을 구제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안주에 뽕나무를 심어 양잠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다. 그때부터 안주지방에서는 뽕나무를 이공사(李公絲) 즉 이공의 뽕나무로 불리었다고 한다.

이원익은 안민과 실사구시를 실천한 관료일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인재였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으로 보기 드물게 중국어에 능통했으며,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장부를 다 외울 정도로 수학을 잘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실무적인 능력이 공평무사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했고,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이원익은 평안도 순찰사와 제찰사를 맡아서 병력과 군량 조달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이원익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 탈환 전투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원익이 평안도 순찰사에서 우의정으로 승진하여 한양으로 갈 때 평양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기록에 의하면 이임한 지방관을 위해 생사당을 세운 것은 이원익이 조선건국 이후 최초라고 한다. 전쟁이 발생하여 민심이 좋지 않았을 때 이원익이 맡았던 군량조달, 신병 모집 및 훈련의 임무는 백성들의 원망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임무였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이원익의 행정처리와 관료로서의

능력이 민심을 다독거리고 민생을 돌보는데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렇듯 이원익의 두 번의 지방관 경험, 전쟁에서 공물과 병력 충원의 경험은 훗날 조선 최대의 개혁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동법 시행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임진왜란 후 선조에게 “오직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며 기타 일들은 부수적인 일일 뿐이다”라고 한 말에서 드러나듯 오직 민생의 안정, 즉 안민만이 이원익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다.

2. 조선 최고의 청백리

이원익은 뛰어난 실무 행정관료이면서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로서 명망이 높았다. 그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40년간 정승생활을 했고, 6번씩이나 영의정을 했지만 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601년(선조 34년) 조정에서 뽑은 염근리에 선발된 이원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실록에 전해지고 있다.

“이원익 같은 사람은 성품이 충량하고 적심(赤心)으로 국가를 위해 봉공하는 이외에는 털끝만큼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의식이 넉넉지 못하여 일생동안 청빈하였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홀로 태연하였다.”

이원익의 청백리와 관련된 일화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이원익이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공사를 하다 호조판서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진면목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원익은 국가의 재정을 맡은 호조판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재물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이권을 따기 위해 달라붙는 자가 있으며, 건축재이며 노임에 대해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으니 자칫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던 것이다.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장관들의 온갖 추문으로 얼룩진 청문회를 떠올릴 때 이원익의 결벽증에 가까운 공직윤리가 더욱 대단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원익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선산이 있는 지금의 광명시 소하동에 거처를 정하고 노년을 보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몇 칸의 초가집에 살면서 떨어진 곳에 벼옷을 입고 돛자리를 짜서 연명했다고 한다. 40년간 정승생활을 했지만 재산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인조가 보다 못해 집을 지어줬고, 그 집이 바로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라는 의미의 “관감당(觀感堂)”이다.

3. 광명시와 오리 이원익

조선시대 고향의 개념은 태어난 곳이 아닌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벼슬 생활은 한양과 지방에서 했지만 노년을 꼭 선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냈다.

이원익의 선산은 현재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해 있다. 이원익 가(家)의 선산이 소하동에 마련된 것은 이원익의 3대 조상인 태종의 손자 수천군 때부터이다. 수천군 이래로 이원익 가문은 현재까지 소하동에 거처하면서 광명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원익이 선산이 있는 현재의 소하동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가 호를 선산이 있는 동네 이름을 따서 “오리”라고 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오리(梧里)는 오동나무가 많은 마을이란 뜻으로 당시 소하동은 오리동으로 불리었다. 또한 이원익은 유서를 통해 소하동에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원익의 유서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선묘는 금천 오리동에 있는데, 고조모 이하 이제 이미 8대에 이르렀다. 늙은 내가 집안의 어른이 되어 같은 성씨의 문중 가족에게 엄책하노니 모두 다 와서 이곳에 매장하라. 이미 다른 곳에 매장한 경우에도 이곳에 이장토록 하라. (중략) 내 자손 중에 혹시 내 말을 위배하고 다른 타지로 나가 장사지내는 자가 있다면 나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영혼이 감시할 것이다.”

이원익이 사랑한 도시, 광명시 곳곳에는 이원익과 관련된 많은 흔적들과 지명들이 남아있다. 현재 광명동에서 소하동을 잇는 광명시의 메인도로의 명칭은 이원익의 호를 따서 “오리로”로 불린다. 소하2동에 위치한 설월리는 이원익이 눈 오는 날 달빛 아래서 산책을 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낭만적인 지명이다. 영당마을은 이원익의 영정이 모셔진 영우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영당마을로 불린다. 이원익 전승학교인 서면초등학교 뿐 아니라 광명시의 많은 학교들이 이원익을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한다. 충현초등학교, 충현중학교, 충현고등학교는 이원익을 모신 충현서원을 기리는 의미로 교명을 정한 곳이다.

이원익의 많은 후손들이 광명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특히, 10대손인 이연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충현박물관의 기초를 만들었고 광명시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윤양의숙을 설립하여 광명지역 교육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윤양의숙은 현 서면초등학교

교의 모태이다.

이원익의 13대 손인 이승규 박사와 종부인 함금자 여사는 흠어진 이원익 관련 유물과 유적들을 모아 충현재단을 설립하였고, 재단 산하에 충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충현박물관에는 이원익이 인조로부터 하사받은 관감당을 비롯하여 이원익과 관련된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광명시에는 4개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18개의 도지정 문화재가 있다. 그 중에서 충현박물관에는 이원익과 관련된 유적인 국가지정 문화재 1개, 도지정 문화재가 16개가 있다. 실제로 광명시 문화재의 대부분이 이원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 광명시 소재 이원익 관련 문화재>

지정문화재	종별	소재지	소유자	지정일
이원익 초상	보물1435	소하동 1084	(재)충현	05.7.5
이원익 영정	도 유형문화재 80	소하동 1086	“	78.10.10
이원익 영우	도 유형문화재 161	소하동 1084	“	96.12.24
이원익 초상	도 유형문화재 224	소하동 1086	이승규	09.6.24
계해사케장연첩	도 유형문화재 228	“	“	09.10.16
이원익인조묘정 배향교서	도 유형문화재 229	“	“	“
이원익 유서	도 유형문화재 230	“	“	“
이원익 도망시	도 유형문화재 231	“	“	“
이원익 계자손서 2장	도 유형문화재 232	“	“	“
번역 경비록 2책	도 유형문화재 234	“	“	10.3.23
이원익 친필유묵 13점	도 유형문화재 235	“	“	10.3.23
이준도 유서	도 유형문화재 235	“	“	“
이원익 묘소 및 신도비	도 기념물 85	소하동 1059-9	(재)충현	85.9.20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도 문화재자료 153	소하동 1084	이승규	10.3.23
금오계첩	도 문화재자료 153	소하동 1086	“	10.3.23
이원익 유묵목판인출본	도 문화재자료 154	“	“	10.3.23
오리선생집.속집	도 문화재자료 155	“	“	10.3.23

4. 청림도시 광명시

광명시에도 이원익의 삶과 뜻을 이어받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광명문화원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현박물관을 방문하여 이원익의 삶과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화 이원익, 소설 이원익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원익 인형극을 제작하여 학교에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오리문화제는 광명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광명시민들에게 향토인물 이원익을

널리 알리고 있다. 초창기 때만 해도 오리문화제라고 하면 오리고기를 먹는 축제인 줄 알고 있던 시민들도 이제는 당연히 이원익을 선양하고 배우기 위한 문화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오리문화제에서 이원익이 77세 때 인조로부터 궤장을 선사받은 것을 기념하여 치렀던 기로연을 제작년부터 재현하여 좋은 평가와 함께 시민들에게 이원익의 삶과 역사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놀이와 문화로 만나는 오리 이원익”란 주제로 이원익 영우 참배 및 헌화, 청백리 백일장, 이원익 사상 세미나, 이원익 글 전시, 오리 이원익 무용 퍼포먼스, 전통문화체험행사, 거리 공연, 퓨전국악 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오리문화제에서는 이원익 선생님의 청백리 사상을 현실에 실천하기 위한 “아나바다 장터” 운영과 각종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천하는 삶을 체험하는 부스 등을 운영하는 등 타 관 주도 축제와는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광명문화원은 2013년도 이원익 기념관을 위탁받아 “오리서원”으로 개칭하고 다양한 전통 인문학 강좌와 전통문화 공연 등을 펼치면서 침체되었던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특히, 이원익 선생님과 관련된 리더십 교육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명시는 향후 대표적인 청렴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마련과 자원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관감당 → 이원익 묘소 → 설월리 → 오리서원을 이용한 이원익 생애 체험관 및 인성/청렴교육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동기부여 및 격려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오리 이원익의 삶의 궤적과 광명시에 미친 이원익의 영향, 이원익의 삶을 접목시키기 위한 광명시의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미래보다 현재를,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원익의 청백리와 안민사상은 더 이상 골동품이 아니다. 이원익의 삶은 국가가 존립해야 하는 정당성을 높여주고, 국민을 통합해내는 핵심가치로서 매우 유효한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

인조반정 이후 혼란했던 정국이 인조가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모시는 순간 안정되었던 것과 임진왜란 전선의 최전방이었던 평안도의 민심이 돌아서지 않고 결집이 되었던 것은 안민과 청렴한 삶을 제 1의 덕목으로 삼았던 이원익을 그만큼 백성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원익의 삶을 먼저 묻은 박물관에서 건져내어 혼란의 시기, 낭비의 시기, 이기심의 시대에 진정한 삶의 지혜이자 조직과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는 이원익의 고향 광명시 뿐만 아니라 황희와 정약용 등 무수히 많은 청백리와 안민을 추구한 목민관들의 고향인 경기도 곳곳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미수 허목의 철학과 연천에 미친 영향

이준용(연천문화원 사무국장)

-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미수 허목 선생

미수 허목 선생은 과연 누구인가?

“미수(眉叟) 허목(許穆)”하면 흔히들 조선 중기시대 “남인의 영수”라던가 동양 제일의 “전서체의 대가”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뿐 그분이 도학사상의 대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음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미수(眉叟)선생은 조선 중기의 도학자로서 당시 유교의 성리학이 성행하여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서 조정은 사대주의가 만연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정신이 상실되었던 시기에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으로 이어지는 민족정신과 민족의 정통성과 위대하였던 문화유산을 주장하시었다. 또한 도학자로서 지금에 말하는 초과학을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일화를 남기셨고 백성을 중히 여기는 정치가이기도 하였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선생은 1595년 생으로 1682년에 88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으며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시호 문정(文正). 현감 교(喬)의 아들이며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사위이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가 향리이고 서울에서 성장하였지만 영남 남인의 거두 정구(鄭述)에게 배웠다.

미수공은 88세까지 생존하였지만 정작 관직을 받은 것은 56세에 참봉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공이 승낙해서 받은 관직은 63세때에 처음으로 지평에 임명되어 사은으로 입시하니 환갑이 넘은 나이에 관계로 진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관직을 사양하고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의 구거(舊居)로 내려가 오로지 학문과 저술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나라에서 관직을 받아 임지로 부임한 것은 삼척부사가 유일하였으며 이때에 저 유명한 “척주동해송(陟州東海頌)”을 세우게 된다. 미수 퇴조비(眉叟退潮碑)라고도 하는 이 비문은 동해송(東海頌)이라고도 불려진다. 이후 대사헌과 이조참판을 거쳐 우의정에까지 이르지만 연이어 관직을 사양하였고 왕은 승지를 보내 만류하기를 반복하였으나 끝까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척주동해비(미수 퇴조비라고도 한다.)

이후 임금이 지어 하사한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소재 “은거당”에 칩거하면서 지인들이 청해오는 묘비문 이나 비문등을 써주고 시와 글을 쓰며 말년을 보냈다. 이때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십팔훈(十八訓)을 걸어놓고 수신제가의 수범을 보였으며 이 십팔훈은 현재까지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교훈이 되고 있다.

미수허목선생의 십팔훈(十八訓)

1. 재물과 이득을 좋아하지 말고
2. 교만과 자만을 부러워 말며
3. 해괴와 허탄을 믿지 말고
4.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5. 미심한 말은 가족을 어지럽히고
6. 질투하는 며느리는 집안을 망치며
7. 여색 좋아하는 자는 자신을 망치고
8. 술 많이 먹는자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9. 말 많이 하는 짓은 반드시 피하고
10. 화 잘 내는 짓은 반드시 경계하며
11. 말은 꼭 충신하게 하고
12. 행동은 꼭 독경(篤敬)하게 하며

13. 상사와 제사는 반드시 조심하고
14. 종족(宗族)들과는 반드시 화목 하라.
15.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자는 허물과 멀어지고
16. 동리를 가려서 사는 자는 치욕과 멀어지는 법이다.
17. 군자의 행신은 남 이기기를 좋게 여기지 않고
18. 스스로 지키기를 현명하게 여기는 것이니 잊지 말고 힘써하라.

연천지역 미수 허목의 상징성과 항일독립운동의 양상

2014. 12. 4.

李俊鎔(漣川文化院事務局長)

이 자료는 2014년 연천문화원이 주관한 제3회 미수문화제에서
현강역사 문화연구소 이우형 소장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임.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미수학의 지역적 계승과 연천 유학의 일면
3. 정미의병과 항일무장투쟁의 성지 연천
4. 연천군 3·1만세 운동의 양상과 특징
5. 일제강점기 미강단소 유림의 저항
6. 마무리

1. 들어가 는 글

- 연천 출신의 대사상가인 미수 허목의 학사적 위치를 임진강 유역권에 제한하여 동시에 규명하고자 함.
- 미수 허목의 생애가 후대에 연천군과 임진강문화권에 끼친 영향을 재조명함으로써 연천의 사상적 전통을 규명하려고 함.
- 일제침탈에 분연히 일어난 정미의병저항기에 가장 활발한 무장투쟁의 양상이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펼쳐진 여러 대내외적인 조건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함.
- 미수학통을 이은 연천 유림들이 3.1만세운동의 핵심 역할을 주도하는 여러 조건들을 규명하려함.
- 일제강점기 미강단소 유림조직에 대한 탄압과 저항의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함.

2. 眉叟學의 지역적 계승과 연천 儒學의 일면

- 연천을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권은 허목 탄생 이전에 고려조에 대한 절의전통과 조선 유학의 퇴계학과 화담학의 학문적 맥을 계승한 예학(禮學), 고학(古學), 백과잡학(百科雜學), 도가적 전통 등, 개방성의 경지를 개척한 선유(先儒)들의 사상적 토양이 이미 싹틔고 갖추어져 있었음.
- 연천은 허목으로 인하여 조선정치사의 격변기에 근기남인계의 학문적 전통의 한 축을 형성하였고, 특히 미수의 7대 제자(이봉경(李鳳敬), 옥래선(玉來善), 남궁덕(南宮德), 이백(李百), 정동학(鄭東學), 이형(李衡), 구경래(具景來))와 그 후손들이 연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기반의 확장 속에 사상적 교류와 함께 미수학파의 전통을 이어감.
- 미강서원과 은거당을 중심으로 변화 발전한 미수학파는, 19세기에 들어 관계진출의 제한, 세도정치의 암울함 속에서도 끊임 없는 역량의 강화로, 한말 국권의 상실기에 일제에 가장 강력한 조직적 저항집단의 중심으로 자리함.

3. 丁未義兵과 항일무장투쟁의 성지 연천

- 을사늑약과 1907년 군대해산 등 일제침탈의 과정 속에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조직적 항일무장투쟁은, 1906년 근대적 교육기구인 흥립학교(興立學校)를 세운 연천 유생 허숙(許肅), 마전의 지산학교(芝山學校)와 미수 학파의 유림들이 운영한 미강단소, 서당 등을 중심으로 항일의식이 고취되었음.
- 100여회가 넘는 연천지역의 정미의병전투사건들은 이은찬, 왕희중, 윤인순, 정용대, 김수민 등 미수학파의 맥을 잇는 연천지역의 사족을 중심으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남.
- 1907년 11월 8일 1,000여명의 무장조직을 이끌고 미수 학파의 맥을 이은 왕산 허위(許巍, 1854~1904)와 연기우(延基羽) 등이 실시한 마전분견소의 공격전투는, 서출진공작전의 실패 이후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했던 미수학파의 텃밭인 연천에서 정미의병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군사작전의 상징성을 가짐.
- 일제의 의병토벌에 대하여 최후까지 저항한 연천 중심의 임진강 유역권 의병진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도 저항의 사례가 남아 있음

마전군청 일원 현재 모습



4. 연천군 3·1만세 운동의 양상과 특징

- 일제의 폭압적 식민지정책에 항거한 전국적인 3·1만세운동에서 연천에서의 봉기양상은, 지방 사족의 강한 저항의식과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에 동화되지 않은 서원과 서당 중심의 미수학과파 후예의 훈장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함.
- 포천 출신으로 용주(龍洲) 조경(趙炯)의 후손인 조우식(趙愚植), 동래정씨 정현수(鄭賢秀), 이낙주, 홍순겸, 한상혁, 구금룡 등 근기남인 사족의 후예에 의해, 1919년 3월 21일 백학면 두일장거리와 마전읍내 만세운동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으며, 그 내면에는 미수학과파의 후예로 미강단소에 중책을 맡았던 미좌(眉左) 정기(鄭基, 1875~1948)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각 지역별 서당에서 유림에 의해 강한 독립정신이 조직적으로 배양됨.
- 4월 1일, 근기 남인의 후예인 나용기(羅龍基, 중면 적거리 거주)와 서당 훈장 이홍식(李洪植)에 의해 중면 삼곡리와 연천읍내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남.
- 3월 30일 2,000여명이 참가한 인근 포천의 만세교 만세시위의 주동자인 용주 조경의 후손 조계식(趙啓植) 역시 연천 전곡읍에서 서당훈장을 역임했던 인물임.
- 연천의 3·1만세운동은 앞선 의병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지역유림의 독립정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모두 미수학맥을 이은 지역 유림과 그 후예들이 핵심 역할을 하였고, 그 중심 공간은 미강단소와 각 지역별 서당에서 독립정신이 학습되고 배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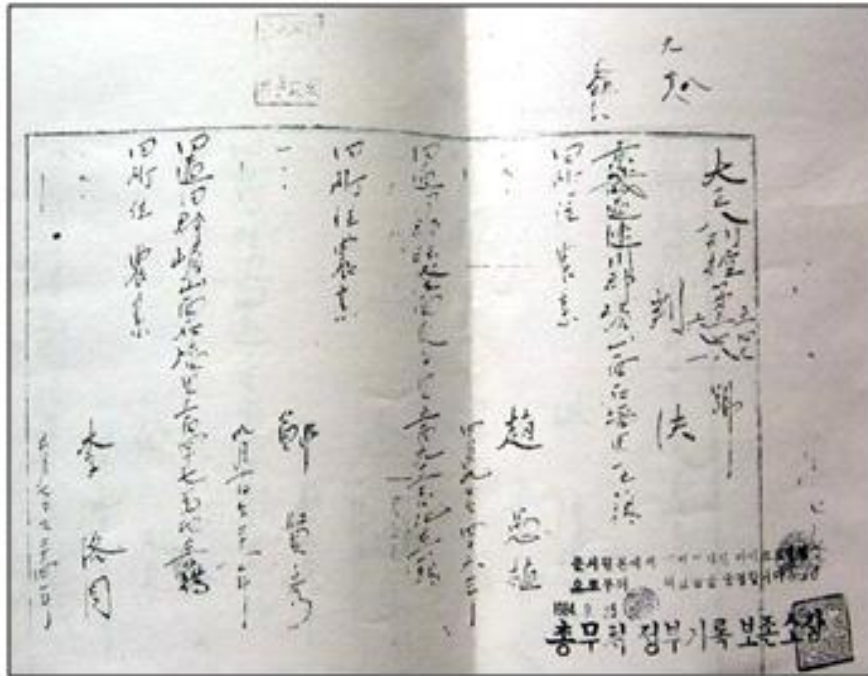
두일리 만세운동의 중심지, 백학두일장거리



두일리 만세운동 관련자 서대문형무소 수감 당시 사진 자료

		
이낙주	정현수	홍순경
		
구금룡	김문유	백천기

두일리 만세운동 관련자 판결문 원본



5. 일제강점기 미강단소 유림의 저항

- 1920년대에 들어 미강단소를 중심으로 하는 미수학파의 유림 조직이 서원의 중건 및 활성화에 대한 전국적인 교류활동에 일제는 주목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연천지역의 강한 저항의식이 미수학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음을 주목한 사례임.
- 미강단소와 서촌지소 중심의 유림활동은 일제 고등계경찰의 중요 요시찰대상에 들며 많은 탄압의 사례를 남김.
- 일제의 교육과정과 창씨개명의 거부 등 절의와 명분을 중요시한 유학전통은 일제식민지 기간 동안 강하게 이어졌음이 원로들의 탐문조사에서 밝혀짐.

미강단소근경



6. 마 무 리

- 미수 허목이 남긴 사상사적 유물은 연천지역의 독특한 정신문화 자산으로 이어지고 승화되었으며, 조선 유학의 다양한 실험정신의 상징성에서 허목의 위치는 독보적인 동아시아 유학의 금지임.
- 절의와 명분, 국난의 극복에 대한 미수학파의 다양한 조직적 대항의 사례들은 현실에 맞게 새롭게 조명되고 향후 체계적인 연구사업이 수반되어야 함.
- 미수학파에 의해 주도된 연천지역 일원의 정미의병 무장투쟁과 3.1만세운동에 대한 재조명, 중요 전적지와 사건현장, 관련인물들에 대한 현양사업이 장기적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연천의 미래지향적 정체성 회복의 방법론에서 우리 유학사에 위업을 남긴 미수 허목의 본향으로써 우리 지역이 가지는 자긍심은 새로운 창조의 동력원이며, 모든 유기적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신적 자산임.

[토론] 미수허목선생의 철학, 연천에 미친 영향

허현강(임진강문화 연구원 원장)

허현강: 미수 허목선생께서는 비단 연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삼척의 척주동해비라던가 전남 나주의 미천서원, 경남 창원의 달천 우물 등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용: 예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삼척의 척주동해비인데요. 조선조 현종 원년(서기 1660년) 강원도 삼척부사로 부임한 허목선생이 당시 동해의 격심한 해파와 조수로 말미암아 하구(河口)가 막히고 오십천이 범람하여 동헌 관아의 마당까지 물이 들어차자 주민들은 농사를 폐농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하여지는 지경에 이르자 부사 허목은 전서체 192자로 구성된 동해송을 지어 2개를 석각 하였는데 하나는 갈필(葛筆 칩뿌리 붓)로 하나는 수필(手筆)로 수각(手刻 손가락으로 돌에 직접 글을 새기는 것)하여 육향산에 세움으로서 삼척의 조수피해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삼척지방에서는 미수선생을 신격화 하며 매년 봄, 가을 삼척시청의 주관으로 시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주라는 것은 삼척의 옛 지명입니다.

허현강: 전남 나주의 미천서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예 전남 나주는 미수 허목선생의 외가입니다. 천재시인으로 유명한 백호 임제선생이 미수선생의 외조부가 되는 데요. 미수선생이 너댓살 무렵 외가인 나주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른 동네로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궁금하여 왜 물을 길러 먼 곳으로 가느냐고 물으니 이 동네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그런다고 하자 그럼 내가 물이 나올 곳을 일러 줄 터이니 파보라고 하여 그곳을 파보니 과연 물이 아주 잘 나오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여 그 샘물의 이름을 미수선생의 호인 미(眉)자를 따고 샘천(泉)자를 붙여 미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현재도 이 샘물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곳 우물을 중심으로 서원을 지어 미천서원(眉泉書院)이라고 명명한 후 미수선생의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미천서원 역시 현존하고 있습니다.

허현강: 감사합니다. 끝으로 달천구천(達川龜泉)에 대해서도 일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용: 예 이 달천구천이라는 우물은 1975년 2월 경상남도기념물 제32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미수 허목(許穆)선생이 만든 것입니다. 허목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한때 달천정(達川亭)에 내려와 약 4년간을 머물렀는데 그곳의 샘물들이 늘 흐리고 식수로 적합하지 않아 이곳에 손수 우물을 파고 그 속에 거북 모양의 자연석을 깎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

고 장마에도 넘치지 않으며 늘 맑고 깨끗한 샘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우물을 달천구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샘물 역시 현존합니다.

안산의 문예부흥과 강세황

정진각(안산학연구원 연구위원)

강세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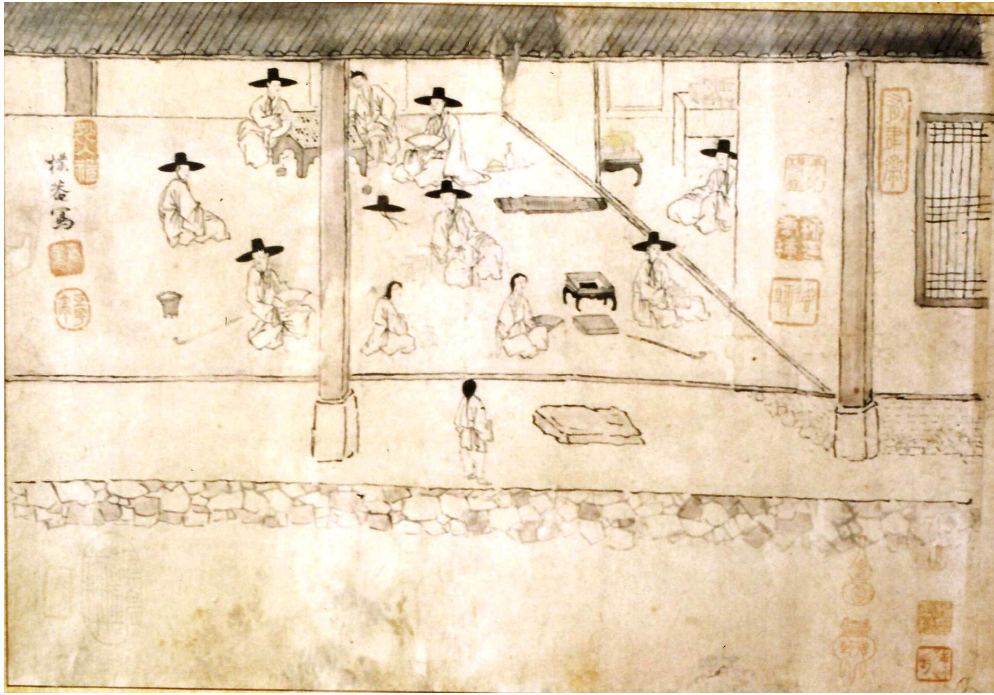
안산은 실학자인 성호 이익이나 화가 단원 김홍도처럼 걸출한 인물들이 활동했던 근거지로 오늘날 안산시의 문화적 자긍심에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안산의 인물 가운데 으뜸으로 꼽는다면 누구일까?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이가 표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다.

강세황은 조선 후기의 문인·서화가·평론가로 시·서·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로서 스스로 그림 제작과 화평(畫評) 활동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 인정받았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字)는 광지(光之), 호(號)는 첨재(添齋)·산향재(山響齋)·박암(樸菴)·의산자(宜山子)·견암(繭菴)·노죽(露竹)·표암(豹菴) 등이다. 또 해산정(海山亭) 혹은 홍엽상서(紅葉尙書)라고도 불렸다. 젊었을 때는 첨재·산향재·박암·의산자, 나이 들어서에는 표암·표옹(豹翁)을 많이 썼으며 간혹 표로(豹老)라고도 했다. 이중 대표격인 표암(豹菴)은 어려서 자신의 등에 있는 흰 얼룩무늬가 표범과 비슷하여 스스로 지은 것이다.

강세황은 서울 남소동(南小洞)에서 3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장수의 전통이 있었고, 그도 71세 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어 삼대째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감으로써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조선왕조를 통틀어 매우 드문 일이며 그의 예술적 성과에 의해 크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 문안공 현(鉉)은 64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그를 무척 아끼고 기특히 여겨 잠시도 무릎위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강세황은 6세에 글을 지었고, 10세 때는 도화서 생도를 뽑는 데 어른을 대신하여 등급을 매겼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어 나이든 화사(畫師)들이 탄복하였다고 한다. 12~13세에는 행서(行書)를 잘 써서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얻어다 병풍을 꾸미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젊은 나이에 집 안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손님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일도 맡아 하였다.

21세 때 진천에 머물던 아버지가 별세하자 3년상을 치르고, 집이 가난한 데다 사람은 많아서 한 집에 살수가 없기 때문에 남소문 안에 있던 본가에서 남대문 밖 염초교 근처에 있는 처가로 이사하였다. 이때는 처가가 안산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그 빈집을 빌려서 임시로 거주한 것이다. 28세 때 다시 어머니상과 시묘살이를 마치고, 집안이 웅색해지자 처가가 있던 안산에 정착하였으니 그의 나이 32세 되던 겨울이었다. 할아버지가 예조판서와 우참찬·판중추부사를 지냈고, 아버지 역시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으나 청백리에 녹선된 가난한 집안이었으며, 벼슬이 없었던 그는 더 이상 서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 처남인 유경종의 권유로 처가인 안산으로 낙향하였다. 하지만 그가 살았다는 집은 처가에서 5리 떨어진 곳으로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¹⁾



현정승집도

안산생활

안산은 문인 강세황이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며 30년간 문예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중요 근거지였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시기를 안산에서 문예환경과 예술세계를 풍부하게 성숙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안산에 거주하면서 문예에 심취하여 한 길을 꾸준히 가며, 여러 문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을 거듭하여 조선후기 문예계의 지도적 인사 위치에 설 수 있었다.

당시 안산에는 청문당의 만권당(萬卷堂)은 이웃 경성당(竟成堂)의 만권당과 함께 조선 4대 서고(書庫)로 손꼽혔으며²⁾, 성호 이익의 아버지 하진이 1678년에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에 청제(淸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던 성호장(星湖莊)과 더불어 안산지역 기호남인들의 학문과 예술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곳이다. 특히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西學)에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성호의 영향으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서양문물에 접하면서 세계관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는 처남 유경종, 친구 허필, 이수봉과 절친하였으며, 이익, 심사정, 강희연 등 여러 사람들과 교유하였다. 유경종이 신광수, 이용휴, 허필, 엄경응, 안정복, 최인우, 조중보, 채제공 등 자주 모임을 갖던 우인들을 네 글자로 평한 가운데 강세황에 대한 대목을 보면 ‘뜰에 내려 아이와 노는 학과 같다[童回庭鶴]’고 하였다. 세속의 욕구를 초탈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표암의 느긋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처럼 안산에서의 교류는

1) 『豹菴遺稿』 卷6 「亡室恭人柳氏行狀」 정사년(1737)에 집이 가난한 데다 사람은 많아서 한집에 살수가 없기 때문에 남소문 안에 있는 강씨 본집에서 남대문 밖 염초교 근처로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집은 곧 공인의 본가로, 본가가 안산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그 빈집을 빌려서 임시로 거주한 것이다. …………… 갑자기 1744년 겨울에 비로소 안산읍에 있는 시골집을 샀으나 공인이 가난한 것에 만족하고 원망이 없었다. 여기에서 공인의 본가까지는 오리가 조금 넘어서 때때로 부인이 어머님께 문안하여 안심시켰다.

2) 姜浚欽 「讀書劄記」

표암의 예술세계를 살찌우는 토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근기지역 특히 경기도 안산의 문화토양은 층위가 두텁고 탄탄하였다. 안산에서 펼쳐졌던 문화는 조선후기 경기 문사들을 대표할만하다. 경치 좋은 바닷가와 산수를 배경으로 술과 차, 음식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거문고를 즐기면서 시를 짓는 모임이 적지 않았다. 그들 문인들은 계절 따라 야외에서나 실내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일상과 이상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수준 높은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발자취를 남겼다. 시서화를 두루 갖춘 강세황은 안산의 문예모임에 참석하는 주요 구성원이었다. 「현정승집」처럼 그가 문인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남긴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문화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풍아(風雅)한 선비들과 바르고 품위 있는 인사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들어 시·서·화로 밤과 낮을 보내는 성사(盛事)의 시절이었다. 그가 모진 가난 속에서도 훗날 조선후기 예원의 총수로서 존송받고, 안산이 또한 새로운 문화 예술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주로 만권당이 있는 청문당(淸聞堂)에서 이루어졌다.

1747년에 그린 「현정승집도」는 안산 청문당에서 있었던 ‘복날 모임’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 붙어 있는 발문에 따르면 이들은 초복 다음날 청문당에 모여서 가정(家獐 :개)을 먹고 거문고와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놀았다. 열한 명이 참석한 이날의 모임에는 강세황과 처가의 인척들(유경종, 유경용, 유성), 강세황의 두 아들(강인, 강흔) 등이었는데, 이중에 거문고 옆에 앉아 오른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가 강세황이다. 시도 읊고, 거문고도 연주하며, 바둑을 두는 등 제각각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그린 뒤 선비 8명이 모두 시 한편씩을 지어 그림 옆에 이어 붙여 놓고, 현정승집(玄亭勝集)이라 이름 지어 놓은 시회(詩會)그림이다. 원래는 그림과 글씨 부분을 합쳐 2m가 넘는다.

그림 앞에는 현정승집(玄亭勝集)이라는 커다란 제목을 쓰고,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림에는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놓고 있다. 그리고 이날 시회(詩會)에 참가했던 8명의 선비들의 시를 차례로 적어 놓았다.

伏日 設家獐會飲,俗也 / 복날은 모여 개(家獐)를 잡아 먹는 것이 풍속이다.

丁卯 六月一日 爲初伏 / 丁卯 (1747) 6월 1일이 초복이었다

是日有故, 其翌日追設茲會于玄谷之淸聞堂 / 이날 마침 일이 있어 그 다음날 이 모임을
현곡 청문당에서 개최하였다

酒闌, 屬光之爲圖, 以爲後觀, 會者凡十一人 / 모인사람은 11명으로, 술이 거나해지자
강세황에게 부탁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여 이날의 모임을 기념하고자 하였다.

坐室中 爲德祖 / 방안에 앉은 사람은 德祖(柳慶種),

戶外執書而對坐者爲有受 / 문밖에 책을 들고 마주 앉은 사람이 有受(柳慶容),

中坐者爲光之 / 가운데앉은 사람이 光之(姜世晃),

傍坐搖扇者爲公明 / 옆에 앉아서 부채를 흔들고 있는 이가 公明(嚴慶膺),

奕于軒北者爲醇乎 / 마루 북쪽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은 醇乎(朴道孟),

露頂而對局者朴君聖望 / 머리를 들어내고 대국하는 이가 (朴聖望),

側坐者爲姜佑 /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姜佑(姜 寅),

跣足者爲仲叔 / 발을 벗은 사람은 仲叔(崔仁祐)이다.

童子二人, 讀書者爲慶集, 搖扇者爲山岳 / 동자가 둘인데 책을 읽고 있는 자가 慶集(姜侁),

부채를 부치고 있는 자가 山岳(姜燿)이다.

軒下侍立者爲家僮貴南 / 마루아래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자는 심부름꾼 귀남(貴男)이다

于時積雨初收新蟬流喝 / 이때 장마비가 처음으로 걷히고 매미소리가 흘러 나왔다

琴歌迭作, 觴詠忘疲 致足樂也 / 거문고와 노랫소리는 번갈아 일어나는 가운데 이어지고

술마시고, 시 읊조리며 피로함도 잊었다

畫成, 德祖爲記, 諸人各爲詩, 系其下 / 그림을 그리고 나서 덕조(柳慶種)는 기(記)를 짓고 제각각 시를 지어 그 밑에 달았다.

복날 다음날 친구들이 모여 개 한 마리를 잡아먹고, 시도 짓고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놓고는 자세하게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술이 거나해진 후, 각자 시 한편씩을 지어 그림 밑에 달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하나같이 풍류와 멋을 즐길 줄 알았다.

거문고를 연주하고 바둑을 두며 시를 읊조리고 음주를 즐기던 당시 청문당 시회를 잘 드러내고 있다. 청문당에서의 시회모임은 그 후에도 열린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시회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각각 한 구씩 읊어 시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淸聞堂聯句」가 그 좋은 예이다.

六人集一堂	/ 청문당에 여섯 사람 모였는데
偶至不待請 光之	/ 청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르렀네 광지(강세황)
汝南昨聚星	/ 汝南땅에 어제 별이 모였고
漳水新起病 德祖	/ 漳水에서 새롭게 병을 털고 일어났네
卜夜關詩壘	/ 밤을 택하여 詩壘를 열고
禦寒行酒政 有受	/ 추위를 막고자 술잔을 돌리네
聯床淸話滾	/ 상을 붙여 맑은 이야기 넘치고
暈壁孤燈映 醒乎	/ 무리진 벽에 외로운 등불 비치네
前潭透淸澈	/ 앞 옷에는 청량함이 내비치고
深室適溫淸 仲	/ 깊은 방엔 따뜻함이 봄에 맞네
時間成雅會	/ 한가한 날 좋은 모임을 이루니
境僻愜椰幽性 寅	/ 이 외진 곳 幽趣에 어울리네

모임에 참여했던 강세황, 유경종, 유경용, 박도맹, 최인우, 강인 등이 聯句로 이때의 정회를 표출하고 있다.

「현정승집」과 청문당처럼 모임 당시와 현재를 이어주는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찾기 어렵고 조선후기 안산의 문예풍토의 분위기를 저력을 시사해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가 가능한 데에는 강세황 같은 시서화에 능한 문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산에서 김홍도와 만남

강세황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김홍도의 스승이라는 점이다. 강세황과 김홍도가 인연은 1740년대 말이나 175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 김홍도가 ‘젓니를 가는 어린 나이’로 안산에 있는 강세황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 김홍도 그림의 기초는 여기서 형성된 것이다. 실제 김홍도 그림 속에 간간이 안산의 추억을 되살리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건대, 김홍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깊은 인연은 1774년 사포서에서 이루어진다. 사포서는 궁중의 밭과 채소 경영을 관장한 기관인데, 강세황과 김홍도는 같은 벼슬인 별제로 이곳에 근무했다. 별제는 종6품으로 녹봉을 받지 않은 명예의 관직으로 당시 사포서에는 3인의 별제를 두었는데, 그중 2인이 강세황과 김홍도였던 것이다. 선생과 제자가 같은 직급으로 같은 곳에 근무했다. 아울러 나이 들어서는 화단에서 서로 지기(知己)로서 지냈다. 기록상 확인되는 관계는 이렇지만, 강세황이 김홍도의 그림에 강세황에 많은 평문을 적은 점으로 보아 강세황이 줄곧 김홍도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홍도도 평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강세황에게 부탁했다. 강세황은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해 많은 평문을 씀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홍도 풍속화의 든든한 배경이 된 것이다.

많은 서화에 대한 평을 남김으로써 당대 최고의 평론가의 위치에 있었던 강세황이 최상의 평가를 보낸 작가는 다름 아닌 제자 김홍도였다. 상당수에 달하는 김홍도의 그림에 화평을 썼는데, 이는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잘 말해준다. 시기적으로는 그의 나이 65세(김홍도 33세)부터 70세 사이에 집중되며, 심지어 78세에 쓴 작품도 있다. 강세황은 김홍도의 작품에 신필(神筆), 신품(神品), 입신(入神) 등으로 평가하고 격려하였는데, 이는 김홍도가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김홍도의 부탁으로 강세황이 지은 「단원기(檀園記)」에서도 “화가는 각각 한 가지에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김홍도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려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특히 신선과 화조를 잘 그려 이것만으로도 일세를 울리고 후대에 전해지기에 충분하다”라고 극찬하였다. 강세황은 맹자가 말한 군자삼락(君子三樂)에서 세 번째 즐거움(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누렸으니 무척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한 것 같다. 강세황과 김홍도.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배출된 대표 사례라 할 것이다.

안산에서 우거하던 강세황은 영조의 배려로 61세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64세 때 기구과(耆耆科), 66세 때 문신정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영릉참봉, 사포별제, 병조참의, 한성부판윤 등을 지냈다. 그는 51세 되던 해(1763)에 갑자기 절필을 하기도 했다. 둘째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영조를 만났을 때 영조가 “인심이 좋지 않아서 천한 기술이라고 업신여길 사람이 있을 터이니 다시는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를 전해 들은 강세황은 임금의 배려에 감격하여 사흘 동안 눈이 부어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화필을 태워 버리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70세를 전후하여 다시 작품활동을 하게 될 때까지 20여 년간은 창작 대신 평론가로서 활동하였다. 71세 때는 할아버지 강백년, 아버지 강현에 이어 기로소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칭송받았다. 이듬해 북경을 다녀왔으며, 76세 때 금강산 유람을 하고 기행문과 실경사생화 등을 남겼다. 시호는 헌정(憲靖)이며, 그의 묘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다.

[강세황의 생가터 자료]

○ 죽은 아내 공인 유씨 행장(亡室恭人 柳氏行狀)

정사년(1737)에 집이 가난한 데다 사람은 많아서 한집에 살수가 없기 때문에 남소문 안에 있는 강

씨 본집에서 남대문 밖 염초교 근처로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집은 곧 공인의 본가로, 본가가 안산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그 빈집을 빌려서 임시로 거주한 것이다. 공인은 항상 가난 때문에 위로 칠십이나 되는 늙은 시어머님이 계신데도 직접 봉양하는 바람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경신년(1740) 삼월에 또 시어머니 상을 당하니, 슬퍼 애통해하며, 몸을 해친 것이 시아버지 상사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이미 부모를 다 잃고, 가난이 날로 더욱 심하여 서울에서 오래 살수가 없었다. 갑자년(1744) 겨울에 비로소 안산읍에 있는 시골집을 샀으나 공인이 가난한 것에 만족하고 원망이 없었다. 여기에서 공인의 본가까지는 5리가 조금 넘어서 때때로 부인이 어머니께 문안하여 안심시켰다.

○ 해암 유공을 제사 지내는 글(祭海巖柳公文)

내가 열다섯에 공의 집안으로 장가를 들었지. 공은 나보다 한살이 적었는데 서로 알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어린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장난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네. 중간에 사람의 일이 여러 번 변해 헤어짐과 만남, 슬픔과 기쁨이 이루 다 말 할 수 없으며, 차마 꺼내고 싶지 않다. 공이 안산에 거주하게 되면서 얼마 뒤에 나도 서울에서 안산읍으로 내려가 살았었네. 서로의 거리가 십리가 안되어 더러는 나귀를 타고 더러는 걸어서 다니며, 단 며칠이라도 서로 만나지 못한 적이 없었지. 술을 차려놓고 담소하며, 붓을 휘둘러 시를 지으면서 유쾌하게 놀며, 서로 즐거워하여 우리 신세의 곤궁함과 우울한 수심을 잊을 수 없었네.

○ 임신년(1752)설날, 감회가 있어 다시 차운하다

성문위에 망대, 호각소리 슬프고

외로운 베게 차가운 등불 한줄기만이 희미하다.
 무슨 힘으로 쇠한 모습을 막을까
 묵은 해 저무는 것을 만류할 방법 없네
 오랫동안 혈육과 떨어져 단란함이 없어지고
 선영과 멀리 떨어져 성묘 하는 일 드물구나
 사십이 되도록 명성이 없어 다만 더욱 부끄러울 뿐
 떠돌아 다니며 의지할 곳 없음을 어이 견딜까?

○ 아들 혼(侁)이 진목정(眞木亭)에 이르러 시를 지은 것이 있어 차운하여 보내다" 중에서

세월은 흘러 벌써 올해도 며칠 안남아
 사립문 깊이 닫고 여기에서 홀로 지낸다.
 가슴속 담담하여 온갖 근심 없으나
 너를 생각하는 한 마음은 떨치지 못하노라
 만겹의 구름 낀 산 멀리 바라보니
 이별의 심정에 길게 흐르는 눈물 어찌지 못하네
 고을 누각에 뿔피리 소리 너무도 무정하구나
 해 지는데 소리마다 수심을 잘도 자아내네

○ 우연히 만남

이날은 족히 아낄 만 하니
좋은 친구들이 약속도 없이 찾아 왔네.
대화가 무르익자 베게에 기대지 오래고,
시 읊기에 애쓰느라 술잔 놓는 것이 더디네.
사귀는 도리는 마음이 물처럼 맑고,
쇠한 모습은 귀밑머리 실처럼 희구나.
서로 만류하며 조금 더 머무니.
어느새 해가 저녁에

또(又)

흔쾌히 성곽 밖에서 모임을 이루니,
어찌 동네 남쪽의 약속을 돌아 보랴.
술을 잔질하니 호쾌한 정이 남아 있고,
시를 듣자니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네.
아득히 울리는 거문고 소리에 응하여
홀로 검정으로 줄친 종이에 배긴다.
앉아서 다른 신선들도 오기를 기다리니,
거리의 종이 울릴 무렵이구나.

○ 녹화헌기"(綠畫軒記) 중에서

서너칸 되는 나의 집이 안산을 남쪽에 있는데 지은 지 오래되어 반이나 퇴락하였다. 아이가 조그만 사랑채를 새로 꾸미니 **바로 마을 남쪽의 여러 봉우리와 마주보고 있다.** 비록 빼어나거나 특이한 형태는 없지만, 마음을 즐겁게, 유쾌히 감상할 수 있고, 또한 그 자체로 단정하고 수려하면서 높고 낮은 모양이 시(詩)로 읊거나 바라보는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어린 소나무와 잡초들이 시야 가득 빛을 드러내는데, 짙은 초록색이 방울져 떨어질 듯 하여 꼭 이 장군과 왕우승의 뛰어난 채색화처럼 보였다. 서로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것이 어찌 경정산뿐이겠는가? 드디어 한유(韓愈)의 말을 빌려 집을 녹화(綠畫)라고 이름 하였다. 손님 중에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옛사람 가운데 나보다 먼저 이것을 가지고 현판을 쓴 사람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무자년(1768) 9월 사흘날 녹화헌에서 쓰다. 때마침 벼를 베어 이 집 앞에서 타작을 하였다.

○ 또 앞의 운에 차운하여 의옹에게 드리다 중에서

아침에 사립문 두드린 이 많아
나막신 자국, 이끼 낀 들에 여기저기 남아있네.
가난으로 빗더미는 산처럼 쌓이고,
가을 들자 터럭은 낙엽과 함께 떨어지는 구나.
산마루 넘어 장촌(獐村)엔 연기가 하얗게 피어나고,
난간에는 취령(鷲嶺)의 구름 푸르게 이네
책상을 어루만지며 낮게 읊조리며 한바탕 웃으니,
갖가지 세상일이 눈앞을 스치는 구나.

[토론] “안산의 문예부흥과 강세황”

이우석(건국대 강사)

◎ 18세기 지방 문화의 중심지, 안산

조선의 문예 부흥기로 불리기도 하는 18세기 안산 지역은 그야말로 지역 문화가 꽃피던 시기였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실학자 이익이 있었으며, 흔히 “일가학림(一家學林)”으로 불리는 집안 자제들 이맹휴, 이병휴, 이용휴, 이가환, 이삼환 등이 그의 문하에서 실학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원 김홍도를 키워낸 표암 강세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토양 위에 심사정, 최북, 허필 등 많은 문인, 화가 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은 그야말로 재야의(지방의) 조선 문예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토대의 중심에는 정진각 선생님께서 언급하였듯이 진주류씨의 청문당과 여주이씨의 성호장 또는 이가장(李家藏)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대표적으로 현양하고 있는 인물을 들어보면 단원 김홍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안산은 ‘단원의 도시’로 명명되기도 하며, 안산시에는 현재 2개의 구(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단원구(檀園區)입니다. 이러한 유례는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미술관을 건립하고 매년 단원미술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호 이익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농촌사업가 최용신입니다. 이분들도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을 건립하였고, 성호문화제, 상록수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지역 인물의 대표성에 대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인물의 선정 이유에는 다양한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분묘 등 관련 유물이 있는 경우 등일 것입니다.

성호 이익과 최용신은 안산에서 활동하고 이곳에서 운명한 경우이며 또한 분묘도 이곳에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경우 안산 지역에서 성장한 경우입니다. 표암 강세황의 경우는 안산 출신도 아니고 이곳에 분묘가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정진각 선생님께서 표암을 안산 인물의 사례로 드신 것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출생하거나, 아무 연고도 없이 사후 분묘만 조성된 인물을 현창하는 것보다 살아생전 활발한 활동을 한 곳이 정작 중

요하다는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안산은 표암의 일생 가운데 1744년(32세)부터 1773년(61세)에 출사(出仕)하기 전까지 30여 년을 보낸 중요한 곳이다. 그는 삼십대, 사십대, 오십대를 안산에서 보내며 활발한 문예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정승집도(35세), 지상편도(36세), 도산서원도(39세), 무이구곡도(41세), 완화초당도(44세), 송도기행첩(45세), 표현연화첩(49세), 자화상(54세) 등 표암의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산출되었습니다.

◆ 질문 1 - 40대 이후의 활동 공간에 대한 환기 필요

그림뿐만 아니라 시나 글씨에도 뛰어났는데, ‘안산 생활’ 시기에 다양한 시 모임과 명승지 탐방 등도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30대에 처가인 부곡동 진주유씨의 종가 청문당에서의 시회(詩會) 등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40~50대에 성포동, 이동, 일동 등에서 여주이씨 문사들과 어울린 ‘단원아집(檀園雅集)’¹⁾이나 ‘섬사(剡社)’ 시회²⁾의 참여 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 곳곳에는 표암과 관련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시와 거문고와 그림을 잘하는 표암의 존재는 단연 활기를 불어넣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안산에서의 문인적 삶은 표암이 60대 이후 중앙에서 문화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커다란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인용하신 <현정승집도>의 발문에서 몇가지 오자가 보입니다.

“부채를 흔들고 있는 이가 公明(嚴慶鷹)”에서 공명(公明)은 엄경응이 아니라 유경농(柳慶農)의 자(字)입니다.

“발을 벗은 사람은 仲叔(崔仁祐)”에서 중숙(仲叔)은 중목(仲牧)의 오자로, 중목은 유겸(柳謙)의 자(字)입니다.

“부채를 붙이고 있는 자가 山岳(姜燿)”에서 산악은 유경종의 아들 유성(柳燿)입니다.

◆ 질문 2 - 표암의 현창 사업과 주체의 문제

표암의 삶에서 ‘안산 생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산 지역에서 표암과 관련된 표창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또 우선순위의 사업은 무엇인지요? 덧붙여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1) 41세인 1753년 이현환, 이광환, 이재덕 등과 함께한 시회.

2) 42세인 1754년에 갖은 시회에서 시들은 《섬사편(剡社編)》으로 엮었다.

[자료] 서석 김만기 선생의 생애와 유적

임명재(군포설화문화해설사 회장)

김만기(1633~1687) 선생은 조선(朝鮮)후기의 숙종(肅宗)의 장인이자 문신(文臣)으로 자는 영숙(永淑), 호는 서석(瑞石),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영숙(永淑), 호는 서석(瑞石). 정관재(靜觀齋)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조선시대 예학의 거두인 김장생의 증손이고, 병자호란때 강화에서 김상용을 따라 남문에 올라가 분신자결한 광원부원군 김익겸의 아들, 참판(參判) 반(槃)의 손자이자 문경왕후(숙종의 비)의 아버지이고 구운몽(九雲夢)을 지은 서포(西浦) 만중(萬重)은 그의 아우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효종(孝宗) 3년(1652)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別試)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으며 수찬(修撰), 정언(正言)교리(校理)등을 역임하였다.

1659년 효종이 승하(昇遐)한 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문제로 논란이 일자 서인(西人)으로 윤선도(尹善道) 등을 공격했다. 이후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성균관(成均館) 사성(司成),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대사간(大司諫)등의 관직을 두루 지냈다. 현종(顯宗)12년(1671)딸이 세자빈(世子嬪)이 되었고, 대제학(大提學), 예조판서(禮曹判書) 등을 역임했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올랐고, 광성부원군(光成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총융사를 겸관함으로써 병권을 장악하였고 김수향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훈련대장(訓練大將)으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남인과 맞섰으며 강만철 등이 허적의 서자 허건과 종실의 복창군, 복선군, 북평군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자 이를 다스려 보사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노론의 과격파로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벼슬이 삭직되었다가 뒤에 복직되었다. 저서로서는 [서석집(瑞石集)] 18권이 있으며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김만기 선생의 묘역과 신도비

- ▣ 종 별 : 경기도 기념물(제131호)
- ▣ 수 량(보유종별) : 일원 (임야)
- ▣ 소유자(보유자): 광산김씨 문헌공파 문중
-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70(대야미동)
- ▣ 지정년월일(고시년월일): '92.6.5 ('93.1.6)
- ▣ 관리단체(관리의무자): 문헌공파 종회 (김건중)
- ▣ 전체면적 : 29,058㎡
- ▣ 문화재구역(보호구역) : 1,004㎡ (28,054㎡)



서석 김만기 선생 묘역

묘역에는 김만기 선생의 묘와 함께 김만기의 아들 김진구와 김진부, 손자 김복택의 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김만기 선생의 묘소는 이 묘역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선원부부인 한씨(韓氏)와의 합장분을 중심으로 어필비, 묘표, 문인석, 망주석, 상석, 향로석 등의 옛석물이 설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 맨아래 산언저리에 서 있다.

문인석

높이 220cm 의 금관조복형으로 신체의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조식이 화려하게 가해졌다. 얼굴은 완화된 표정으로 귀가 옆으로 향하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은 아랫 입술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양관의 테에는 운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옷 주름은 유연하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향로석

6각 탁자형으로 다리부분에 복련문으로 장식했으며 몸체 받침에는 화분을 장식했다



▣ 어필비

176cm의 방부원수형으로 복련, 당초문,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의 전면에 ‘어필(御筆)이라고 전서로 쓴 후 ‘國舅保 社功臣光城府院君諡文忠功萬基之墓’란 숙종이 쓴 면서를 세졌다.

음기는 아들 김진구가 지었고 건립연대는 1699년(숙종25)이다. 비문에는 묘표를 세울 돌을 하사한 점, 한때 보사훈이 삭탈되었는데도 그것을 지우지 못한 사정 그리고 보사훈이 다시 회복되고 숙종이 어필로 묘표의 큰 글씨를 써준 사실등을 기록하였다. 다음은 비문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애당초 선신(先臣:돌아가신 아버지)이 성세와 영원히 이별할 적에 임금님께서서는 은졸 (隱卒: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일)의 조서를 내리시며 봉수와 변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장례에 관한 것은 관부에서 내어주게 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묘표를 세울 돌을 하사해 주셔서 신이 이미 벼슬을 그만둔 송시열을 찾아가 면서 및 음지를 간청하여 분묘의 좌측에 세웠습니다.

얼마 후 간신배들이 세력을 잡음을 당해서는 보사훈(保社勳) : 국가사직을 보위한 공로)을 삭탈하였는데 묘표에 이미 공신이란 글자가 있었으니 마땅히 고쳐야 되지만 당시 신진구가 저멀리 궁벽한 섬에서 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미처 고치지 못했습니다. 갑술년(1694, 숙종20)의 경화에 이르러 훈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셔서 선신의 억울하게 더럽혀짐을 씻어주셨고 또 어필로 묘표의 큰 글자 이하를 써 주셨습니다.

양아! 성상이 선시에 대해 시종 일관되게 보살펴주시고 또 묘도에 까지 영광이 미치게 하신 것

이 이와 같습니다. 신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데 선신의 영혼께서도 구천지하에서 감격해 흐느껴 울 것입니다.

☐ 표

224cm의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는 ‘유명조선국보 사공신영숙녕부사광성부원군시문충서석김공만가영숙지묘 서원부부인한씨좌 (有名朝鮮國保 社功臣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諡文忠瑞石金公萬基永叔之墓 西原府夫人韓氏左)라고 써 있다. 대석 전면에 두 마리의 사자가 가운데의 방울을 다투는 모습이 있고 측면에는 한 마리가 우측의 방울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음기는 송시열이 지었으며 건립 연대는 1687년(숙종13)이다. 다음은 비문의 내용 중 일부이다.

[오호라! 서석 김공께서 돌아가셨으니 세상의 도와 나라의 운명을 누가 붙들어주고 잘 아 주겠는가? 찬번은 다스려지고 한번은 어지러운 것이 서로 이어져 그치지 아니하여 장차 그 어지러우려 할 때를 당하면 하늘이 반드시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나니 또한 공이 책임자가 아니겠는가? 오호라? 한걸차고 크며 풍만하고 빼어나 용모는 소통하고 명랑하며 풍개는 엄정하고 심원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엄연하여 공경할 만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온화하여 사랑할 만한 것은 공의 용의가 아닌가? 엄중하면서도 너그럽고 후하며 공경하고 예법이 있으면서도 툭고 깊어 높고 높아서 산악을 움직일수 없는 것과 같으며 깊고 깊어 하해(河海)를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공의 局量(국량)이 아닌가?



▣ 신도비

337cm의 방부개석형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양식은 아무런 조식이 없는 단정하고 검약한 모습이다. 비문의 제액은 '광성부원군김공신도비'로 아들 김진규가 썼으며 음기는 송시열이 지었다. 건립연대는 1703년 숙종(28)이다.



다음은 비문의 내용중 일부이다.

또 허적의 아들 견이 간사하여 속이고 옥사를 일으킴에 적은 탄로가 날까 크게 두려워하여 그 부자의 역모가 더욱 굳어졌다. 윤희와 원정은 허적을 도제찰사로 삼을 것을 청하여 병권을 통합하려 하였고, 또 용사를 모아 밤낮으로 문앞이 가드하게 되었다. 훈련대장 유혁연 역시 마음대로 사병을 창설하여 견의 무리인 강만철, 만송에게 이를 맡겼으며 역적 남도 오랫동안 모반할 뜻을 품고 드디어 함께 피를 마시며 맹약하였다.

일의 형세가 매우 급하게 되자 허적은 큰 잔치를 벌여 의관한 자를 모은다고 민간에 선전하여 장차 이것을 이용하여 공과 청성을 제거하고 거사하려 하였다. 이에 친한 이가 있어 공에게 가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우리 두사람 모두가 가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남을 도모하려고 하면서 먼저 남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여 평탄하게 그곳에 가서 술잔을 처음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궐에서 부르는 명이 공에게 이르러 급히 대궐로 들러가게 되었다.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지금 조정에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일이 많으니 광성 부원군으로 훈련대장을 삼는다.’고 하였다.

공은 그날로 군문에 들어가 장교들에게 수배하였다. 그러나 장교들은 대부분 유혁연의 심복이므로 모두 불안하게 여겼으나 공이 정성을 다해 위무하여 주니 감격하여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흉당들은 사졸들이 이미 모두 마음을 돌려 동요되지 않음을 알고 태반이 흩어졌다. 이에 정원으로, 가만철 등의 고변으로 남.견, 만송 등은 자백하여 죽임을 받았고 윤희, 유혁연도 차례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공에게는 ‘문충효의병기협모 보사공신’의 호가 책훈 되었다.

묘역 중앙에는 대형분묘(墳墓)가 8개의 호석(護石)에 둘러싸여 있고, 그앞 좌측에는 묘표가 우측에는 숙종 어필(御筆)의 묘표가 있으며 전면 좌우에는 8각(角)의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文人石)이 각각 위치해 있다.

숙종 14년(1688)에 세워진 묘표의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김진규(金鎭圭)가 글씨를 쓴 것이고 숙종 어필의 묘표는 숙종 25년(1699)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글씨를 쓴것으로 4각의 기단(基壇)위에 비신을, 그 위에 가첨석(加첨石)을 얹었다.

나이	연도	연호	강세황 관련 사항	주변 사항
	1709	숙종35		許泌 출생
	1710	숙종36		
	1711	숙종37		
	1712	숙종38		
1	1713	숙종39	출생	부인 진주유씨 출생
2	1714	숙종40		유경종 출생
15	1727	영조03	진주유씨와 혼인	
17	1729	영조05		강인 출생
20	1732	영조08		유경종 염초교에서 안산이주
21	1733	영조09	아버지 별세	
25	1737	영조13	염초교 이주	
27	1739	영조15		강흔 출생
28	1740	영조16	어머니 별세	
31	1743	영조19		강관 출생
32	1744	영조20	안산이주	
33	1745	영조21		강빈 출생 / 김홍도 출생
35	1747	영조23	현정승집(玄亭勝集)	
36	1748	영조24		
37	1749	영조25	눈내린 저녁 모임	
38	1750	영조26		
39	1751	영조27		김홍도 만남(?) 추정
40	1752	영조28	성문위에 망대 호각소리 슬프고	
41	1753	영조29	聲臯酬唱錄에 등장(성호)	유경용 사망
44	1756	영조32	부인 진주 유씨 사망	
50	1762	영조38	원당사 머뭇	
51	1763	영조39	영조 배려에 감동 絶筆	이익 逝世, 강흔 증광문과(안산)
53	1765	영조41		강인 진사(안산)
54	1766	영조42	豹翁自誌	
56	1768	영조44	綠畫軒記	
61	1773	영조49		강관 강빈 진사(안산)
62	1774	영조50	서울이주	
72	1784	정조08		유경종 사망
74	1786	정조10		강인 증시(미상)
78	1790	정조14		강빈 증광문과(京)
79	1791	정조15	逝世	

